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검토 및 활성화 방안

Revitalization Plan for Mountain Eco-Village Project of Gangwon Province

| 김 점 수 |

강원발전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RIG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검토 및 활성화 방안 / 김점수,
— 춘천 : 강원발전연구원, 2012
p. ; cm, — (연구보고 ; 11-27)

ISBN 978-89-5705-365-2 93520 : 비매품

농업정책〔農業政策〕
강원도〔江原道〕

522.1-KDC5
338.18-DDC21

CIP2012000177

발간사

산림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이 1994년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도입하면서 산촌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1995년에 춘천시 지암리 산촌생태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강원도에서도 2011년 현재 설계하고 있는 마을을 포함하여 76개 마을이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촌지역 개발 사업을 통하여 많은 임산물 생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산촌 개발 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시설과 숙박에 의한 소득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산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 산촌은 주변의 도시와 관광지 등 주변 자원을 잘 활용하고, 친환경 농산물 개발과 도농 교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인근 지역과 연계한 대량 생산체제 구축,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의식 개혁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 지역상품 브랜드화와 새로운 분야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강원도내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선진 산촌 활성화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강원도내 산촌개발사업 조성이 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투자비 및 운영형태 등을 검토하여 사업 형태별 활성화 방안, 인접 지역과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더욱 활성화시켜 강원도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전체가 각각의 마을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 증대를 통하여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집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점수 박사와 자문을 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12월

강원발전연구원장

가 롱민

목차

요약문

- I.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2
 - 2.1. 연구 방법 2
 - 2.2. 연구의 주요 내용 2

- II. 산촌생태마을 선진 사례 검토 5**
 - 1. 국외 사례 5
 - 1.1. 일본의 산촌정책과 산촌개발 5
 - 1.2. 유럽의 산촌 개발 사례 19
 - 2. 국내 사례 23
 - 2.1. 산촌종합개발 사업 시행전후의 인구 변화 23
 - 2.2. 전남 구려군 상위마을(산수유마을) 24
 - 2.3. 가평 행현리 산촌생태마을 25
 - 3. 산촌개발 사례의 시사점 26

- III. 산촌생태마을 특성 검토 29**
 - 1. 산촌생태마을의 특성 29
 - 1.1. 산촌지역의 특성 29
 - 1.2. 산촌개발사업과 산촌 실태 32

2. 산촌 개발 관련 지원 사업	35
3.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검토	36
3.1.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 현황	36
3.2. 분야별 사업비 비율	38
3.3. 세부사업 검토	43
4.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상 문제점	57
IV.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59
1. 산촌생태마을 구분	59
2. 미래지향적인 산촌 조성의 전제	60
2.1. 지역 환경 및 자원 조성	61
2.2. 지역 고유의 이미지 소재 개발	62
2.3. 지역 발전 전략 모색	62
2.4. 지역의 특화분야 선정	63
2.5. 특화분야의 관광 상품화	63
2.6. 장소마케팅 및 유기적인 건축물 창조	65
3. 산촌 활성화 방안	66
3.1. 중점 사업별 활성화 방안	66
3.2. 인적·물적 자원 활용방안	68
3.3. 홍보마케팅	69
V. 결 론	71
1. 결 론	71
2. 정책제언	72
참고문헌	74
ABSTRACT	75

표목차

<표 1> 산촌종합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인구 및 가구 증감 23
<표 2>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37
<표 3>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현황 38
<표 3>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현황<계속> 39
<표 4> 산촌생태마을별 분야별 소득 42
<표 5> 투자 사업비 및 주변 여건에 따른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구분 60

그림목차

<그림 1> 우리나라 임가(林家)현황	34
<그림 2> 경영주 연령대별 가구수	34
<그림 3> 권역별 임업소득(단위 : 원, 2010년)	35
<그림 4> 분야별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비율(%)	40
<그림 5> 연도별 분야별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비율(%)	41
<그림 6> 산촌생태마을 사업 비중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 비율 분포	46
<그림 7> 생활환경개선사업 중 세부사업 분포도	46
<그림 8> 산촌생태마을 사업 비중 생산기반조성사업에 투자한 비율 분포	50
<그림 9> 생산기반조성사업 중 세부사업 분포도	50
<그림 10> 산촌생태마을 사업 비중 산촌녹색체험시설사업에 투자한 비율 분포	53
<그림 11> 산촌녹색체험시설사업 중 세부사업 분포도	54
<그림 12> 산촌생태마을 사업비 중 마을 기획 및 운영사업에 투자한 비율 분포	56
<그림 13> 마을 기획 및 운영사업 중 세부사업 분포도	56

요 약 문

1995년부터 시작한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 선진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강원도내 76개 마을 중 이미 조성된 50개 산촌생태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검토하여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이나 유럽 등 외국의 경우는 산촌은 주변의 도시와 관광지 등 주변 자원과 연계 발전시키거나, 친환경 농산품 개발과 도농 교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인근 지역과 연계한 대량 생산체제 구축,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주민의식 개혁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쉽, 지역상품 브랜드화와 새로운 분야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강원도의 산촌생태마을은 초기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시설에 사업비를 주로 투입하였고, 2008년부터는 녹색산촌체험사업을 분리하여 산촌체험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늘리고 있다.

생산기반시설로는 산채 재배와 약용식물, 산양삼 재배, 버섯 재배 등을 위한 투자가 많았으나 생산되는 임산물의 소득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조성된 산촌체험사업인 숙박과 체험시설에 투자를 늘려 단기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산촌개발사업비만 가지고는 산촌을 활성화시키기는 다소 어려우므로 산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임산물 생산 실태 및 인적 구성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마을별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근 지역과 연계한 강원도 특산의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과 도농교류를 통한 판매, 산촌 문화의 개발 및 신산업분야 개발과 지역 브랜드 개발과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주민 교육, 헌신적인 지도자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에서는 마을 특성별 차등적인 지원체제 구축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농한기를 활용한 주민 교육, 마을별 특색이 있는 브랜드 개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1%가 산지로 되어있고, 다양한 산림 생태자원과 임산물, 산촌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자원을 산촌소득으로 연계시키거나 산촌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산촌지역에는 소득자원이 적고, 취업의 기회가 적어 주민들이 이농하거나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거의 없어 산촌인구는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령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산림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이 1994년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도입하면서 산촌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는 1995년부터 지암리 산촌생태마을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50개 마을을 완성하였고, 2011년 현재 설계중인 마을을 포함하여 76개 마을이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산촌지역 개발 사업을 통하여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 일부 산촌 개발 사업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시설과 숙박에 의한 소득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강원도의 산촌생태마을사업 조성이 완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의 진단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산촌마을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선진 사례를 검토하여 강원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을특성에 따라 산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2.1. 연구 방법

- 국내외 산촌 활성화 사례 조사
 - 스위스 및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산촌 활성화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의 타 지자체 등 선진 사례를 검토하여 강원도에 접목할 시사점을 도출시킴
-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실태 및 자원조사
 - 산촌생태마을의 조성 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문제점을 파악
 - 강원도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계획 검토 및 분야별 세부사업 조사
 - 마을과 연계한 산림자원, 휴양자원 등 지역자원을 조사
- 산촌 개발 및 산지 활성화 등 산촌 전문가 자문
 - 도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강원도 산촌의 활성화 방향 제시
- 강원도에 적합한 산촌생태마을의 발전방안 제시
 - 산촌지역 특성별 산촌생태마을 발전방안을 제시함

2.2. 연구의 주요 내용

- 산촌 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일본, 유럽 등의 산촌개발 및 정책 추진 사례 검토
 - 산림청 지원 사업 및 국내 산촌 개발 사례 검토
- 강원도 산촌생태마을의 실태 파악
 - 1995년 이후 사업을 시행한 강원도 50개 산촌생태마을을 대상으로 분야별 투자사업 검토
 - 산촌 생태마을의 계획 및 추진상의 문제점 파악

- 자원 특성별 산촌생태마을의 구분
 - 강원도 산촌생태마을의 분야별 투자 형태, 주변 소득 및 휴양자원 등 산촌생태마을 지역 특성별 구분

-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 방안 수립
 - 선진 사례 중 강원도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강원도 산촌생태마을에 적용시켜 산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 산촌생태마을의 지역 자원 및 운영 특성별 적합한 산촌마을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제시

II. 산촌생태마을 선진 사례 검토

1. 국외 사례

1.1. 일본의 산촌정책과 산촌개발

일본의 산촌문제는 1950년대 초를 시작으로 1955년 이후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산촌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촌의 과소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1960년부터 1965년 사이 일본의 산촌 인구는 14.3%가 감소되었고, 취업인구는 16.1%, 농업인구는 19%가 감소했다. 1965년부터 산촌진흥법을 제정하여 산촌진흥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산촌 진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산촌의 경제력 증대와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격차를 줄이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일본에서의 산촌 개발은 개발주체에 따라 산촌주민 주도형, 관민 합동형, 기업주도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세천 등, 2001)

산촌주민 주도형 중의 하나는 나가노현 기지마다이라촌(木島平村)으로 총면적 99.31 km²이고, 26개 촌락을 형성하고 있다. 임야면적은 총 면적의 87.3%이며, 내륙성 기후로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적설기간이 110일로 겨울이 상당히 긴 편이다. 겨울철 적설기간이 길어 스키장과 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이 마을은 인구 유출로 인한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광산업의 도입을 마을의 기본방침으로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단계로 마을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마을에 스키장을 개설하였다. 2단계는 스키장 정비, 자연휴양촌센터 건설, 관리사무소와 판매소 정비, 체육관

의 신설과 증설, 탐방로의 정비 등이며, 3단계로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마음의 풍요,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육성하고, 주민 활력의 향상과 [고향에 먼지와 사는 보람을 요구하며]를 마을의 기조로 하였다. 4단계는 주민의 생활공간인 마을을 자연극장의 무대로 보고 주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의 기본테마를 [자연극장 기지마다이리]라 하였다.

관민합동형은 군마현 타카야마촌(高山村)으로 분지형 마을이다. 산업구조는 1차:2차:3차 산업의 비율은 3:3:4로 나타났다. 이 마을의 인구는 인접 도시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지역 개발의 테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속에서 생활과 생산의 조화를 추구하는 마을]로 주변 고원지역을 목장과 골프장, 레크레이션 지역, 가족형 리조트 등이 조성되었다. 지자체 공무원의 주도하에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지역 자원의 차별화와 지역 특성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있다.

기업주도형은 동경 주변지역으로 마을에 있는 鬼手高原 리조트의 이용 고객은 동경권이며, 마을의 지형상 스위스의 쾰라우 지방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비슷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리조트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스키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호텔 등 각종 시설을 추가로 유치하여 종합휴양지로 바뀌었다. 기업측은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지역 토산물을 우선적으로 이용, 지역 상점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통하여 지역과 같이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산촌은 귀농에 대한 지원, 고령자 생활 대책, 교육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산촌 진흥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농간의 교류에 의한 상품 교류, 지역문화축제를 통한 생태관광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전문가 집단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1.1. 일본 나가노현 森の家(모리노이에)

나가노현은 일본 혼슈(本州)의 중부지방 동부의 내륙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2,598.48 km²이며, 인구는 1999년에 약 2,200천명이다. 기후는 내륙성 기후의 특색을 나타내어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기온의 수직적 변화가 크다. 중심도시인 나가노시의 연평균 기온은 11.3℃, 강수량은 1,014mm이다. 1998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동계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3위의 농업 중심의 현으로 쌀, 과일, 채소 재배와 축산·양잠이 중심 산

업이며, 하천에 많은 발전소가 건설되어 전국적인 전원지대(電源地帶)를 이룬다.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배경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많다.(김종호 외, 2006)

모리노이에(森の家)가 위치하고 있는 나가노현 이이아마시(長野縣 飯山市) 나베쿠라 고원일대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고, 수질이 우수하여 와인 및 일본술 제조로 유명한 지역이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산이 많은 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임업이 쇠퇴하면서 지역경제가 점차 침체에 빠져 들었다. 이 지역이 지형적 영향으로 눈이 많고 농작물의 재배 기간이 짧아 생산성이 떨어져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임업의 경우는 산림자원은 풍부하지만 비싼 국산재의 사용보다는 해외의 값싼 원목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임업이 점차 침체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청장년층의 도시 유출로 고령자만 남게 되었는데, 40년전 이이아마가 시로 승격될 당시에는 인구가 4만명에 달했으나 현재에는 시인구가 2만 6천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농가 수는 8,500호에서 5,000호로 감소되었다.

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확립을 위하여 1955년에 스키장이 조성되면서 겨울철 스키인구를 많이 유치하였으나 감소추세이다. 스키 관광객의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을 이용한 녹색관광 사업이 대두되었다. 농·산촌 진흥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녹색관광 사업은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줄이고 도시민들의 농촌체험의 장으로서 도농간의 교류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지역의 방치된 땅을 이용하여 모리노이에(森の家)를 조성할 당시 주민들은 경제적 기반의 낙후와 고령화로 지역이 침체되고 있었다.

모리노이(森の家)에 지배인인 기무라 히로시(木村 宏) 등 9명의 운영진이 주축이 되어 농업 구조개선 자금을 활용하여 1997년 7월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본관 및 통나무집 10동) 자금으로 4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2년간의 조성 기간을 거쳐 1999년 완공하였다.

이 사업을 주도한 운영진 모두 타 지역 출신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속의 삶을 추구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었으며, 전직 환경청 공무원, 교사, 유치원 보조, 스키장 강습 요원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민들의 의식개조 운동을 겸해서 녹색관광을 위한 기반조성에 전력하였는

데, 외부인들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녹색관광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시와 상공회의소,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단법인체(대표는 시장)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다.

모리노이에를 중심으로 한 녹색관광은 도시민들의 쉼터 역할로 연 20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 지역의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가 활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정주하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 청장년층을 유치, 정주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시설 등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용객 200만명의 절반은 학생들이며 나머지는 가족, 친구, 연인 순이었고, 지역별로 보았을 때 1시간 거리에 있는 배후도시인 인근의 나가노시(인구 70만명)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이 50%, 타 현이 50% 정도를 차지하였다.

현재 모리노이에를 중심으로 한 녹색관광과 연계된 민박집이 300여 곳으로 성업 중이며, 이용객들은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됨이 없이 연중 고루 분산되어 있었다. 녹색관광 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스키가 주 관광 상품이었으나 현재는 계절별로 다양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름 카누, 가을 단풍, 겨울 스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녹색관광 이전에는 스키와 관광의 비율이 7:3이었으나 지금은 4:6으로 녹색관광객이 증가되었다. 녹색관광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이템은 200여개가 넘으며,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은 소바 체험, 삼림욕, 카누였다.

모리노이에 녹색관광은 도시민들을 농산촌으로 불러들이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NHK 방송이 이 지역을 취재하여 전국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언론에 알려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1.1.2. 일본 나가노현 시가무라(四賀村) 크라이가르텐(시민농원)

원래 유기농업을 하던 지역으로 과거에는 생산된 야채를 전량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나 수출 부진으로 농지가 방치된 것을 현재의 시민공원으로 개발하였다. 1988년에 촌장의 주도로 독일의 농촌을 모방한 자연농원인 크라이가르텐을 구상하고 이용가치를 최대한 발휘하여 1990년에 사업의 방향을 구체화시켰다. 사업비 6억 2천만(산촌진흥

비가 50%, 주민 자부담이 13%, 지자체 37%)으로 1993년에 농가주택 53개동 등 부대 시설을 완공하였으며, 2003년까지 78개동을 구획 현재는 131개 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성 초기에 일본의 시민농업법상 밭에는 주택 건설을 금지한 조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들의 탄원으로 건설되었다. 농원의 부지는 주민의 소유로 운영주체가 매년 300평당 5만¥의 임대료를 주고 있었다.

크라이가르텐의 운영은 제3섹타(시, 촌, 공공단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과 입회금은 촌에서, 직원 및 각종 행사관리는 시에서 나누어 관리하는데, 관리인원 7명 중 상주인원은 四賀村役場에서 파견된 농림과 소속의 4명이다.

각 동당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생활시설, 거실, 옷장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밭의 경작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도록 하였으며, 생산된 농산물은 상업적 외부판매를 금지하며 자가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이용객들의 체재일수는 평균 월 7일 내외이며, 운영주체에서는 월 6일 정도 머물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는 1년 내내 머무는 경우도 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연간 임대료는 가구당 20만¥, 25만¥, 35만¥ 3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내의 하숙비가 월 4-5만¥임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다. 그 외의 경비로 난방비, 전기세, 행사참가 보조비 등으로 연간 10만¥ 추가 부담하고 있다.

주 이용객은 퇴직한 노인들로 거주지는 차로 4시간 이내인 동경, 요코하마, 가나자와 현 등의 지역이 많으며, 이용객들은 사전 건강진단을 받아 밭을 경작하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선별하고 있다. 의료시설로서 인근에 도보로 10분정도의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으나 상주하는 의사는 없다. 월 1회씩 특별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각자의 농산물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수확제를 개최하여 현지 주민 및 근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를 위로하면서 친밀감을 공유한다.

이러한 농원 운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간의 사고나 의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찾아오는 도시민들이 친밀감을 갖도록 스마일운동을 시작하여 [지방친척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지방에 친척 감정을 가지도록 친밀감을 부여함으로써 유대관계를 증진시킨다.

크라이가르텐은 임대료에 의해 운영되는데 연간 1,200만¥의 수익이 발생하며 이중 순수익 500만¥은 저축하고 있다. 그 외에 마을발전을 위한 기부금 등으로도 수익을

연고 있으나 이용객의 주변관광 즉, 온천, 스키 등을 즐기기 위한 거점시설로 이용하며 이러한 활동에서 파생되는 소비 비용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무형의 얻어지는 이익이 많다.

또한 자연적인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에 의해 53개동 모두 입주되어 있으며, 이용객들에 인기가 높아지면서 인근의 四賀村有機센터에 미도리오구(綠ヶ丘)크라이가르텐을 건설하여 영업 중에 있다. 테마는 "산림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산림 속에 건설하여 유기농법을 실현하며 산속에서의 생활이 坊主山 크라이가르텐과 구별되나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크라이가르텐은 농촌의 문화마을건설의 시초가 되고 있다.

시가무라 유기센터의 시설의 목적은 축산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축산구비와 생활 잔흙을 혼합, 교반하여 양질의 유기비료로 리사이클하여, 오랫동안 다용해온 화학비료로 인해 악화된 토양의 개량을 도모하고, 지력 증진과 유기농업의 활성화, 그리고 농산물의 진흥을 꾀한다.(이상, 김종호 외, 2006 내용 인용)

1.1.3. 미야자키현 아야정(綾町)의 지역 활성화¹⁾

일본 미야자키현 아야정은 전체면적의 80%가 삼림으로 벌채와 식재사업이 지역의 중요한 경제활동이었다. 이러한 아야정의 지역 가꾸기는 1966년 일본 최대의 조엽수림대 벌채계획을 주민운동으로 저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산림벌채사업의 저지로 아야정의 경제활동은 새롭게 모색되어야만 하였다. 그 대안으로 깨끗한 자연 이미지를 살린 자연생태계농업의 실천과 이를 바탕으로 도농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아야정의 성공 전략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박시현, 2006).

첫째, 안전한 먹거리 직접 만들기였다. 아야정의 자연생태계농업은 1973년 모든 가정에 1평 규모의 텃밭을 만들어 가족이 먹을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한평채소밭가꾸기운동(一坪家庭菜園運動)'에서 시작한다. 당시 농정방향은 중심작물 한 종류만 가꾸고 나머지는 사서먹도록 하는 이른바 농업의 합리화가 강조되는 시대였기에 처음에는 주민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가격보상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의 결

1) 박석희 등(2009)내용 일부 인용

과 1995년 제1회 일본 환경농업추진콩쿠르대회에서 수상하기에까지 이른다.

둘째, 리더와 사람 가꾸기 시스템의 구축이었다. 아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을 총회에 해당하는 정내회(町内會)가 조직되어 있다. 이 조직의 임무는 쓰레기 수집, 방재시설의 관리 등이 일반적이거나 아야정에서는 자치공민관을 설치하고, 관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하였다. 선출된 공민관장에게는 정 사무소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자치구 스스로가 무엇을 할 것인가와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였다. 자치공민관이 전개한 운동은 ‘호1품 운동과 ‘한 평 채소밭 가꾸기 운동’이었다.

이들 운동으로 만들어진 물건과 재배한 유기농채소가 지역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서 아야정을 다녀온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진짜 물건이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된 것이다.

셋째, 자연생태계농업의 기본인 토양 가꾸기였다. 지역의 토지에서 나온 것을 다시 지역 토지로 돌려주어 자원을 리사이클 시킨다는 이념의 실현을 아야정 최고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유기농에 필요한 유기질을 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넷째, 자연생태계 농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 갖추기였다. 특히 자연생태계 농업 추진 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이다. 이 조례는 자연생태계 농업을 위한 기본기술의 확립, 농지 검사와 관리용 자재 사용, 생산관리 검사기준 설정, 유기농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1.1.4. 일본 오이타현 유후인

일본의 주민자치형 민주주의가 성공한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 1970년 7월 이노세토에 골프장계획이 발표되어 유후인의 산악회, 식물학회, 일반시민들의 반대운동이 일면서 유후인의 ‘자연을 지키는 모임’이 발족되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1971년 3월에는 산업, 인간, 환경 등으로 구성된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이 발족되었다. 회원 일부가 유럽을 벤치마킹을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을 비전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1972년 6월 ‘유후인 자연환경보호조례’가 제정되었고, 주민의 반대운동으로 골프장 건설도 반대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로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후 1986년에는

인재만들기 간담회 설치, 1988년에는 유후인 환경디자인회의 설립, 윤기있는 마을·인재만들기 기금 조성, 1990년에는 유후인 여성포럼 개최, 1988년에 유후인 문화·기록영화제 개최 등 마을 만들기 정책과 관련 주민자치 활동이 계속되었다.

1972년 7월에는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이 (재)신생활활동협회로부터 '내일의 지역주민운동활동상'을 수상하면서 대외적으로 주민참여민주주의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 외에도 많은 수상을 받아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의 발전 문제,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독일의 쿠어 오르트와 같은 보양온천을 구상하기 위한 '쿠어 오르트 구상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주민들은 비전을 실천하는 주체의 육성을 위하여 1991년에 '인재육성 유후인 재단'을 발족하였고, 2007년의 주제는 '0세부터 100세까지: 아이들의 미래를 육성하는 평온한 마을 만들기'로 이 재단의 사업은 교육, 문화, 환경, 복지, 산업, 정치,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유후인은 단순한 조직이나 제도를 초월한 협동 단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후인의 성공전략은 무분별한 개발 반대를 통한 지역 보전, 즉, 외지 자본에 의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에 반대한 지역주민 스스로의 지역 활성화 추진이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지역 지키기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즉, 건축물 고도 제한 등 지역 경관 보전 및 유후다케 스카이라인 보존 등 자치조례를 제정, 마을 리더의 선진 농촌의 벤치마킹, 젊은 농업인 유치 프로그램 운영, 관광객의接客 교육, 마을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즉, 마을의 골목길을 보전하여 방문객의 감성을 자극하게 하고, 역사를 활용한 미술관 조성, 영화제와 미술제 유치 추진, 미술관 유치를 통한 최근 30여개의 미술관과 갤러리 운영, 지역 농특산품 개발 및 판매, 즉, 지역 경관 보전을 위한 농촌경관 보전프로그램 운영, 지역 대표 먹거리인 두부, 푸딩, 고로케의 상품화 및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통한 농민과의 소통 공간 확충, 토속 음식점 및 토산품 판매점 운영의 활성화 추진, 15종류의 상점 운영 등이다.

1.1.5. 일본의 떠오르는 산촌, 쿠로카와(黒川)

黒川の 지역특성은 관광지로서 내발적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공한 지역이며, 젊은 여성

의 마음을 끄는 일본지역의 인기 온천 지역 중의 하나이고, 리쿠르트지가 발행하는 여행잡지(じゃらん)에 九州, 山口지역 중 방문했던 지역 중 좋았던 관광지 투표에서 1998년 부터 2002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黒川 온천지역의 성공과정은 1964년 아마나미고속도로 개통에 의해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다시 30대 전후의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지역을 활성화시켰다. 黒川온천의 변화의 기초가 된 것은 [하나의 여관을 개선한다해도 黒川 전체를 잘살게 할 수는 없다. 黒川 전체를 좋게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지역 전체를 하나의 온천, 각각의 여관을 방으로, 도로를 복도로 생각하고 여관을 연결시키고 있다. 공생·공동체의식이 현재의 흑천 온천마을을 일으켜 세웠다. 일부 반대도 있었으나 공동체의식으로 모두 실시하게 되었다.

관광객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추구하여 노천온천과 자연을 살린 풍경에 따라 관광객이 치유와 휴식을 제공한 것이 관광객을 많이 모이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이런 성공방안이 다른 여관으로 전파되어 마을 전체로 퍼져 발전하게 되었다.

입장티켓(入湯手形²⁾)에 의한 노천온천을 공동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인기 있는 온천지로 발전되었다. 1987년에 비해 1995년에 티켓 판매량(91,000개)이 15배 증가되었다. 관광 수입의 증가는 협동조합의 총 사업비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새로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지방세가 증가되었고, 지역 이미지가 통일되었고,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었다. 흑천 온천의 성공요인은 젊은 경영가가 리드하는 공동체 의식과 지역의 자연과 자원을 최대한 살리고, 신문 등 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 것이다.

1.1.6. 일본 오구니(小國) 마을³⁾

일본 구마모토현 오구니마을은 아주 평범한 산골마을이었다. 그런 오구니마을이 아주 독특한 공간으로 변화하여 지역차별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마을은 일본의 산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본삼나무를 지역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

2) 1200엔의 입장 티켓으로 6개월 동안 여관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임

3) 박석희 등(2009)내용 일부 인용

자체이자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메카로 외국에도 알려져 있다. 이 마을의 몇 가지 성공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황태규, 2006).

첫째, 나무를 이용하여 지역디자인을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삼나무를 이용하여 실내체육관(오구니돔)을 지어 일본 내 화젯거리가 되었다. 또한 버스터미널을 나무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지었고, 나무의 생활화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년 된 초등학교를 나무 그대로 수리하고, 복원하여 일본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었다.

둘째, 독특한 디자인 속에 온고지신의 지혜를 담아내었다. 목혼관(木魂館)이라는 생태학교의 건물도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나무의 질감을 충분히 살려 지역상징물이 되고 있다. 커다란 통나무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소재를 나무와 결합시키는 조상들의 지혜를 그대로 담아내어 현대와 전통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건축물을 감상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셋째, 초청한 목공예 예술가가 새로운 경지의 목공예를 개척하였다. 특히 일본의 나무를 이용한 목공예가의 박물관은 보는 이가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공예가는 처음에는 맹인학교 교사로서 일하면서 맹인들의 예술 활동을 돕기 위해 목공예를 시작하였는데, 아주 독특한 영역의 새로운 목공예를 개척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연구하러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넷째, 전통적 도구로 상징화한 다음 경쟁력 있는 대중제품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나무를 통하여 구축한 지역 이미지를 선도브랜드로 하여 지역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영국에서 수입한 소를 사육하여 영국이라는 이미지와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고기 맛을 차별화하고, 우유,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어 지역산품으로 기획하여 팔고 있다.

1.1.7. 일본 고카세초(五ヶ瀬町)⁴⁾

일본 미야자키현 북서쪽의 산중에 위치한 고카세마을은 예로부터 산천어(야마메) 서식지로 유명한 산골이었다. 주민들은 35년 전부터 전통가옥(가야부키) 식당을 지어 산

4) 박석희 등(2009)내용 일부 인용

천어요리 판매는 물론 민박사업도 병행하였다. 이후 산천어 인공부화에 성공하면서 대량 생산된 산천어의 판로 확대에 고심하게 되었다.

때마침 일본열도에 불어 닥친 리조트개발붐에 편승하여 고카세마을에서도 스키장 건설을 추진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스키장 건설 적지가 산천어 양식장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1차 산업인 양어장을 포기하는 대신 스키관광객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라는 3차 산업에 주력하기로 결의하였다. 비록 사업초기에는 스키장 수입과 산천어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분이 산천어 생산 감소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기도 하였으나 곧 바로 스키산업이 사양화되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의 태풍에 의해 스키장 일대가 초토화되면서 계곡의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따라서 산천어 사업도 존폐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실패경험을 통해 고카세 주민들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현재는 산촌 생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발전략을 수정하였다. 최근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6개의 탐방로를 개발하면서 탐방로 일대의 식생과 관광자원을 정밀 조사하였다. 예컨대 '기리다치 야마사쿠라'라고 명명된 산벚꽃의 발견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300여종의 새로운 식물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하자 수많은 동호인과 식물학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탐방로 일대를 답사하면서 발견한 석회암지대를 '화석의 길'로 명명하고, 일반 폭포보다 3배 정도 많은 음이온이 발생하는 높이 150m의 폭포를 '환상의 폭포'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카세마을은 유행에 민감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중심의 인위적 개발방식을 버리고 희귀식물, 폭포, 지질, 전설 등을 활용하는 친자연적 개발방식을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연보전과 함께 방문객들은 자연 속에서 걷고 감상하고 느끼면서 장시간 체류하고, 지역주민은 숙박업과 산천어 음식사업 등의 소득사업에 참여하는 삼위일체형 상생모델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1.8. 나가노현 오우타키촌(長野縣 王瀧村)

오우타키마을은 인구 1,235명(1999), 세대수 426이고 면적 310.86km²이고, 인구밀도 3.97人/km²인 전형적인 일본의 산촌이다. 오우타키의 연평균기온은 섭씨 8.5℃이고, 여

름과 겨울에 지형성우설이 내린다. 이 마을은 매년 8월 12일에서 15일까지 "은하수 그리고 당신과 나"라는 주제로 별에 관한 이벤트(Star Week)를 개최하고 있다. 또 오우타키는 오우타키산(3,063m)의 스키로도 유명하다. 오우타키는 쥬오혼센을 통해 비교적 나고야와 가까우며 매년 12년에서 3월 중순까지 스키객이 붐비고 있다.

이 산촌의 밤하늘을 어디에 가던 아름답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을 이벤트화한 것은 지역자치체와 주민과 지역 유지의 힘찬 노력에 의해 실행되었다. 8월 12, 13, 14일의 3일 동안에 약20만의 관광객이 모여 별 관측, 별 이름알기, 어린이 천체교실, 명사와의 시간, 별과 추억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있다. 또 오우타키담, 미우라담을 이용하여 낚시, 보트 등의 수상자원을 이용하고, 댐 주변 저지대에는 사이클 코스, 산책로, 테니스장을 비롯한 운동시설, 온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1987년에 72만, 1990년에 83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많은 소득을 올렸고 지금도 계속하여 관광 레크리에이션, 오우타키스끼목(木)을 이용한 기념품제작, 오우타키담의 민물고기와 산채가 공품 등의 특산품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마을에는 댐이 있다는 특징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일본의 전형적인 산촌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이 일본에서 제일 별이 잘 보인다는 즉, 좋은 환경이라는 선전을 방송매체를 통하여 하고 있다. 즉 촌장과 의회의장 등이 동경의 중앙방송국의 아침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오우타키를 설명하고, 주민들은 대도시에서 나가 살고 있는 친인척과 주민들에게 편지를 하고, 나가노현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8월 12일~15일까지 약 20만의 관광객이 오우타키의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다.

또 나고야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어 12월에서 3월까지 스키를 탈 수 있고, 겨울의 비사업기에 주민이 스키장에서 얻는 소득도 매우 크다. 그러나 오우타키의 경우 여름의 스타워크와 겨울이 스키 이외는 지역의 지장산업은 미비하다. 또 지역자원 중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개발도 미비한 상태이다. 또 이 마을은 1988년 오우타키 지진 이후 마을의 전반적 분위기가 침체해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의 이농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나가노현에서는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관광레크리에이션 및 리조트 조성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오우타키에서는 이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우타키의 관광레크리에이션의 문제점은 여름과 겨울에는 많은 관광객(연중 관광객의 83%)이 오고 있으나 봄과 가을의 관광객은 거의 오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특산품 개발과 민속축제 등의 이벤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후술할 지역발전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와 기존자원의 차별화는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지역자원의 선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1.9. 군마현 타카야마촌(群馬縣 高山村)

타카야마마을은 군마현의 북부에 위치하고, 총면적 64.16km²이고, 북·동·남의 3방면이 약 1000m내외의 산지속에 분지형태의 마을이고, 니이하루촌 쓰키요노정(町), 오노카미촌 그리고 서쪽으로는 누마타시(沼田市)와 접하고 있다. 촌의 중앙에는 국도 145호선이 남북으로 통하고 있고, 마을의 동쪽에는 지방도로가 있다. 누마타시(沼田市)의 베드타운으로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타카야마 지역개발의 테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속에서 생활과 생산의 조화를 추구하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촌 주변 고원지역을 목장과 골프장, 관광 레크레이션지역, 가족형 리조트 등을 조성하고 있고, 중앙에 가공공장과 건설회사 등이 있다.

이 마을의 지역자원은 고모찌 목장과 골프장 그리고 시리타카 인형극, 대리석마을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먼저, 이 마을 생활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누마타시(沼田市)의 생활권속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지역발전의 커다란 문제점이다. 이 마을의 상업적 기능은 누마타시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타 지역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아이덴티티의 약화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지역운동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마을의 선결문제는 지역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마을의 지역자원 중 골프장이 현재,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해서 다섯개가 있는데 초기의 2개는 외부인의 소유의 골프장이고, 그 후 설립한 1개는 타카야마 지역자치체의 소유이고, 현재 진행중인 2개는 토지는 지역주민 및 지역자치체의 소유이고 건설·관리운영은 제 3섹타에 의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초창기 외부인들에 의한 개발과 지역 자치체에 의한 개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현재는 줄어들고 있고, 제 3섹타에 의한 개발 즉 전문경영인에 의한 합리적 운영, 보다 높은 이익, 지속적 노동력 창출 등의 점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1.1.10. 사이타마현 하나조노정(埼玉縣 花園町)

하나조노마을은 사이타마현의 중앙에 위치하며 총면적 15.83km²이고, 후카야시(市), 카와모트정(町), 요리이정(町)과 경계를 하고 있다. 인구는 12,763명(1999), 인구밀도 806.25人/km²이다. 이 마을은 다른 산촌보다 전·답의 비율도 높으며, 동경 근교의 산촌 지역이며, 마을에는 가공 공장, 동경의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마을의 지역개발의 테마는 농업과 공업, 상업의 조화 속에 활력이 있는 지역가꾸기이다. 하나조노의 역사자원은 쿠로다고분, 기타네가(家), 나카다신약, 토요에신사의 사자춤 등이 있다.

하나조노마을은 칸세쓰자동차도로의 하나조노인터체인지로 유명한 사이다마 중앙부 교통의 요지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자치체에서는 세가지의 지역발전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도시근교농업형태로서 원예, 목축, 유기농법에 의한 신선한 야채를 생산해 직접 JA농산물센타에서 판매하고 있다. 둘째, 각종 공업의 생산지로서 간세쓰자동차도로를 통하여 1시간 내에 동경에 도착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고 있다. 셋째는 칸세쓰자동차도로를 통한 동경과 사이타마에 출근하는 회사원의 주택지로서의 성격의 하나조노 마을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조노는 농업적 성격과 공·상업적 성격, 베드타운적 성격을 포함하는 지역계획을 실시해야 했다. 특히 하나조노의 특징은 농림수산물비와 사회복지, 환경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특징이 있고, 1994년에는 JA농산물판매장의 확장에 2억엔의 특별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마을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현지 주민과 이주자의 대립과 지역계획의 목적 차이(현지 주민은 농산물 가공 및 집하장, 농산물 판매장의 확대 등의 소득 증대를 희망하고, 이주자는 대형 쇼핑센타 등 상업시설과 복지시설, 스포츠 시설,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희망)등으로 주민 참여가 2원적으로 분리되는 문제점이 있고, 지역자원의 차별화에서도 지역 정체성에 대해서도 대립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역 자치체의 역할 분담은 잘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1.2. 유럽의 산촌 개발 사례⁵⁾

1.2.1. 이탈리아 Abruzzo, Lazio and Molise National Park내 Opi 산촌마을

Abruzzo, Lazio and Molise National Park내에는 25개의 산촌마을이 있으며, 특히 Abruzzo지역에는 강을 따라서 6개 산촌마을이 있다. 보통 이탈리아의 산촌마을의 주민 수는 3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마을이 형성되며 인구가 300명 미만의 적은 마을 2-3개 정도에 1개의 교육기관이 존재한다.

Pescasseroli는 약 5,000년 전에 형성된 마을로서 100년 전까지는 양을 10만 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전형적인 목축마을이었으나 초지의 황폐화로 인하여 현재는 1만 마리 정도의 양을 사육하며 목축업에서 관광업으로 전환하여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 산촌마을이다.

마을 주민 수는 약 2,000명 정도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시설이 있으며 우체국, 병원, 은행 등이 마을 내에 있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산촌마을에 속한다. 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민박, 식당, 특산물 판매 등의 관광수입이 주를 이룬다.

Opi마을 역시 중세시대에 조성된 산촌마을로 산의 해발 1,200m 이상의 정상부에 형성된 외딴 마을로서 농작물의 생산은 없고 단지 양을 목축하는 가난한 산촌마을이다. 마을주민 수는 200여 가구의 700~800명으로 주민들의 평균연령은 60대 이상이며 주로 70대에서 80대의 노인들이 많다.

Opi마을은 중세시대의 만들어진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모든 것이 볼거리로 전환될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이다. Opi마을 역시 Pescasseroli와 마찬가지로 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 식당, 특산물 판매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1.2.2. 이탈리아 Sarteano, Montepulciano 산촌마을

Toscana주는 이탈리아 20개주의 하나이며 UNCEM의 한 지부가 위치하고 있다.

5) 산림청 홈페이지 자료 인용

Toscana주는 9개의 Community Country를 가지고 있다.

Sarteano와 Montepulciano마을은 Toscana주의 Siena의 부속 마을들로서 Siena에서 가장 높은 Centona산의 능선부위에 위치하고 있다. Siena는 5개의 부속 마을이 있는데 보통 1개 마을당 주민 수는 5,000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읍·면 정도의 규모이다.

UNCEM의 Toscana지부는 UNCEM의 각 지부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듯 Toscana지역의 농업, 목축업, 가공업, 생산, 경제활동 등에 관여하며 정책과 방향 등을 제시한다. 각 시, 군과 부속마을에 지부의 현지 기관이 상주하며 지부가 하는 업무를 동등하게 수행한다. UNCEM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듯이 UNCEM의 지부는 지방정부와 마을의 연결하며 각 지방정부와 가공업체 및 생산업체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Sarteano마을은 수려한 경관과 온천이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Montepulciano마을은 포도생산지로 유명하며 특히 와인이 유명하여 마을 소득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마을들은 전통적인 농업과 목축업 및 온천, 경관, 와인을 이용한 관광업에서 주요 소득을 올리고 있다.

Montepulciano의 포도재배는 17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까지 커다란 포도장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포도를 경작하여 50%는 영주의 수입, 50%는 경작민의 수입이 되는 계약방식으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커다란 와인 전문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와인 재배 방식은 바뀌었다.

Montepulciano는 과거 포도의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해발고 350m이상에는 포도를 재배하고 해발고 200m이하에서는 농업과 초지를 육성하여 목축업을 병행하고 있다.

포도재배가 마을의 주요 소득원이기 전에는 화훼를 주로 하였으며, 그 화훼를 이용하여 향신과 염색물로서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다. 포도와 와인이 유명해지면서 와인과 포도가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1.2.3. 스위스 산촌진흥계획

스위스의 경우 알프스 산악지역의 지형·지리적 불리성, 낮은 소득여건, 그리고 70년대부터 심각해진 도시로의 인구유출 문제의 심각성 등을 인식하고 일찍부터 산악지역

에 대한 지역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연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조건불리지역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계획 제도를 규정하였다. 최소 행정단위인 지방정부마다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 개의 지방정부를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였다. 스위스 전체의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총 54개의 계획지역의 규모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중간규모임을 지정하고, 이들 계획지역을 대상으로 산악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계획을 뒷받침할 법규와 지침을 마련하고 몇 개의 지방정부가 합쳐진 지역계획이기 때문에 철저한 버튼업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마다의 특성, 목표,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지역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에 관련된 모든 통계자료들을 망라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며 지역계획 수립 시 모든 부문을 동등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별 특화사업 부문을 강조한다.

베른 동부지역의 경우, 전체 사업의 약 70%를 관광부문에 투입하고, 관광사업 다음으로 농업부문에 비중을 둔 계획을 수립한다. 관광 사업은 단순한 숙박시설이나 건축물은 물론, 보다 중요한 요소는 경관과 산림이다.

1.2.4.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Simonswald 산촌마을

Simonswald는 독일 남부 흑림지대에 있으며 Freiburg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20여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에는 110개 정도의 Gemeinde가 속해 있으며 Simonswald도 이 중 하나이다. 전체 규모는 7,230ha이다. 마을인구는 현재는 여자 1,528명, 남자 1593명으로 총 3,112명이다. 과거의 통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1871년에는 2,982명, 1955년에는 2,548명으로 한 때 인구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역시 도시화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도시지역으로 빠져 나간 시기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은 1178년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체 마을에서 농가는 129가구이며 이중 30가구만 전업농인 반면, 그 외 주민, 특히 젊은 사람들은 겸업의 비중이 높다. 예전에는 목공업이 마을의 대표적인 산업이었으나 흑림지대의 시계산업의 부흥과

함께 시계산업이 마을의 중점산업으로 육성되었다. 흑림지대의 시계 산업과 연계한 기계부품제조 공장이 이 지역에 있으며 또한 방문객들의 유치를 위해 주변에는 시계박물관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를 다시 유입할 수 있게 된 요인으로서는 첫째, 주변의 좋은 교육여건을 들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기초 교육시설뿐 아니라 Freiburg에 있는 대학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 집에서 통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시에 각종 할인 혜택을 준다. 셋째, 관광산업과 함께 지역 특화 산업의 도입으로 인하여 마을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넷째, 마을이 곳곳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이 지역의 기후는 쾌적할 뿐 아니라 분지형이 아니어서 공기의 소통이 잘되어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공기가 맑다. 또한 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초지와 산림과의 조화를 이룬 우수한 경관으로 인해 독일 남부에서는 기관지 또는 천식 환자들의 휴양지로도 유명하다. 이로 인해 농부라 하더라도 휴양객들을 위한 민박업이 과거부터 발달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에는 120개 침대 규모의 숙소에서 방문객이 6,300명이었고, 1975년에는 1,800개 침대에 방문객이 25,000명 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문객들의 숙박일 수가 작아지면서 2,000개 침대의 규모로 숙박능력은 증가한 반면, 연방방문객 수는 오히려 감소한 상태이다.

Simonswald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지방 주정부인 Baden-Wuerttemberg 주의 발의에 의해 1986년에 마을 발전 프로그램 수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Simonswald에서는 방문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을 정비, 산책로, 자전거길을 보강하였다. 현재 산책로의 길이는 160km이며 자전거로는 53km에 이른다. 마을 주민들의 관광 상품의 일환으로 마을축제 행사 때는 전통의상을 입고 거리행진을 하고 마을 주최로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산림관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황폐화된 독일의 산림 복구를 단순림으로 조성하였다. 그 결과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저항력의 약화로 인하여 80년대 말에는 극심한 병충해 피해를 보았다. 이에 따라 혼효림과 함께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숲으로 덮인 임목 중심의 산지가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초지로 조성되어 관리되기도 한다. 초지로 인한 임목 수입의 감소는 주정부에서 보전해 준다. 이와는 상반되게 EU에서는 초지에 조림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준다. 이 지역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정부뿐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

2. 국내 사례

2.1. 산촌종합개발 사업 시행전후의 인구 변화

김세천 등(2005)이 조사한 9개의 산촌종합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 사업 전후의 가구 수 및 인구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거창과 장수군의 경우는 변화가 없으나 춘천시, 곡성군의 경우는 가구 수와 인구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9개 산촌 인구는 총 1,936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에는 1,980명으로 44명이 증가하였고 가구 수도 사업 시행 전에는 635가구였으나 사업 시행 후에는 659가부로 24가구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산촌종합개발에 의해 인구의 유출은 둔화시키고 점차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낙후된 산촌 진흥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995년부터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표 1〉 산촌종합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인구 및 가구 증감

구 분		춘천	곡성	양평	영동	공주	보성	영주	거창	장수	합계
사업 시행 전(A)	가구수(가구)	146	73	43	71	60	93	48	66	35	635
	인구수(인)	452	234	165	195	181	267	150	191	101	1,936
사업 시행 후(B)	가구수(가구)	161	76	45	73	60	92	51	66	35	659
	인구수(인)	479	246	170	199	183	265	146	191	101	1,980
증감(B-A)	가구수(가구)	+5	+3	+2	+2	-	-1	+3	-	-	+24
	인구수(인)	+27	+12	+5	+4	+2	-2	-4	-	-	+44

자료 : 산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방안(2001)

2.2. 전남 구례군 상위마을(산수유마을)

2.2.1. 지리적 특성

1996년 개장한 지리산 온천지구와 인접해 있고, 산수유 군락지가 있어 마을에는 정원수, 가로수로 산수유를 심어 경관을 조성하고 산수유 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산수유 재배를 통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온천 및 산수유 축제 등 연간 약 2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인근 하동군과 남원시, 순천시로부터 접근성이 우수하며, 지리산과 접하고 있어 주변 관광자원 및 자연자원이 우수한 지역이다.

2.2.2. 주요사업 및 소득

산촌마을개발에 1999년부터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비는 5개 부처에서 총 24억 2천만원으로 주로 마을회관 신축, 도로 정비사업, 주택 개량사업 등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저온저장고 설치, 고로쇠나무 조림, 버섯재배 등 소득사업 개발에 집중 투자하였다.

마을의 소득은 산수유 판매수익과 인근 산에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수입, 산채 채취 수입 등 임산물 소득이 총소득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임산물 소득이 높은 편이다. 마을면적은 1,290ha이며, 이 중 임야가 92%로 전형적인 산촌마을에 속한다.

2.2.3. 성공요인

첫째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며, 마을 이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는 대규모 시설 도입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설치와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오폐수시설 및 하수도 시설 설치로 깨끗한 계

곡을 유지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마을을 추구하였다. 물론 처음에는 산림휴양시설과 위탁시설을 도입하여 대규모 관광지화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가 경제 위기 및 환경단체의 반발, 지역 주민의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산촌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킨 것이다. 마을의 주산물인 산수유 종자의 탈각기를 개발하여 재래방식 보다 10배 이상의 생산성을 높였고, 또한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하여 12ha를 조림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하여 이농 보다는 소득증대에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았다.

넷째는 단기적인 편리함 보다는 장기적인 환경 개선 및 시설 투자를 하였다. 마을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오폐수시설과 저온저장고, 마을회관 등을 설치하므로서 사업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온저장고의 설치로 고사리, 두릅, 산나물 등의 생산시기를 조절하므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운영방식의 채택이다. 지역주민의 고령화로 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자연환경을 활용 관광객이 마을에 체제하면서 고로쇠 수액 채취와 산수유 종자 채취 등 채취체험과 휴식을 할 수 있는 현대식 민박시설을 활용한 녹색관광의 도입이다. 이에 부수적으로 농림산물 공판장을 설치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여섯째는 산촌개발사업비 지원 이외에 산림청 사업인 가로수 식재, 사방댐 건설, 임도 설치 등과 행자부 소관사업인 민박주택개량 사업, 농림부 소관의 약용식물재배사업, 문화관광부 소관의 산수유촬영대회 등 연관 사업을 마을에 집중 지원한 지자체의 판단력으로 마을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마을개발 사업 이전에는 농가평균소득이 전국평균 보다 낮았으나 사업 후 전국 평균 보다 높았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미치고 있었으며, 마을인구도 우리나라 농촌 전체는 감소하였으나 이 마을은 증가하였다.

2.3. 가평 행현리 산촌생태마을

행현리 산촌생태마을 주변에는 축령산과 아침고요수목원, 잣향기푸른교실 등이 있어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고, 가평의 주 특산물인 잣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잣마을 입구조형물을 설치하여 마을의 분위기를 알리는 것과 산촌소득사업으로는 다양한 산채 재배, 산촌녹색체험시설로는 잣신제리모델링, 축령산 등산로 조성, 치유의 숲 조성과 잣휴양관 및 체험관을 조성하여 잣을 테마로 한 산촌마을계획이다.

3. 산촌개발 사례의 시사점

일본의 산촌은 인근 관광지역과 도시지역과 연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지의 관광인구의 산촌지역으로의 유입으로 인한 체험관광, 도시지역 주변은 휴양, 휴식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어 산촌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도농 교류의 장으로서의 농산물 판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부단한 노력과 지도자의 리더십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있으며, 지역 상품의 브랜드화와 새로운 분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 마을과 연계한 대량생산체제를 추진하고, 지역의 특산물 생산과 함께 이와 연계한 체험관광, 농특산물 판매를 실시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 하나는 산촌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의 농산촌 활성화의 좋은 사례지역인 유후인의 주민자치의 성공요인은 첫째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구축되고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며, 둘째로는 주민 생활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개인을 넘어서 주민으로서 대처하는 것이다. 셋째는 주민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모임과 그룹 활동의 전개이다. 넷째는 주민들의 학습과 소통의 모임들에서 나타난 의사들이 지방 조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와 지방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오픈 마인드와 주민 의사 존중이 유후인의 주민자치를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럽의 경우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포도 재배를 통한 지역

특산물인 와인을 생산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주변 도시와 연계한 마을 활성화와 생활환경기반 정비를 통한 마을 경관을 개선시켜 휴양, 치유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별 다양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강원도에서도 지역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마을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 사례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상위마을의 경우 지리적 특성을 살린 산수유 재배와 인근 지리산과 온천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소득 증대, 타 지원 사업비 확보를 통한 마을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으며, 가평의 경우는 이미 잘 알려진 잣을 활용하고, 주변의 수목원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는 체험시설의 도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고 주변 자원을 활용한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의 지원 사업 확보를 통한 기반 시설 확보에 노력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소득 증대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강원도에서도 많은 자원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지역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Ⅲ. 산촌생태마을 특성 검토

1. 산촌생태마을의 특성

1.1. 산촌지역의 특성

산촌지역은 산림의 점유 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회·경제·문화적 수준이 낮은 인구 과소지역으로서 임야율이 70% 이상, 경지율이 26% 이하, 인구밀도 111인/km² 이하인 읍·면 지역을 의미한다.(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요령 제2조 산촌의 정의)

산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의 인구의 유출은 산촌을 노령화 지역, 부녀 중심 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산촌을 유지하고 산촌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산촌은 인구의 過疎化로 인한 인력난과 젊은 층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산촌마을은 '산간오지에 위치한 촌락' 또는 '산림이 많은 지역' 등으로 이해되거나, 도시 또는 농촌과 구별되는 단순한 지역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는 농촌의 연장선상에서 산촌을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도 있으며 낙후지역, 후진지역, 사회적 공백지역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산촌은 공간적 위치, 사회·경제적 조건, 인구 등에 있어 일반 농촌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산촌은 산림에 둘러싸인 촌락으로 임야의 점유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으며, 사회, 문화적 혜택이 낮은 지역으로 입지적인 특성상 생활환경의 정비수준이 낮으며 인구가 적은 지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구분한 바에 의하면 임업진흥 촉진지역의 지정기준으로 산림의 이용 가능성과 오지성을 반영하여 임야율이 70% 이상으로 하였다. 반면에 경지율은 21% 이하인 지역을 선택한 것은 전국 읍면의 평균 경지율을 기준으로 저소득 지역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인구밀도는 전국 읍면 지역의 평균인구밀도인 111인/km² 지역을 산촌마을로 선정하였다. 이 구분지표에 따르면 전국 419개 읍면, 4,052개 리가 해당된다.

국토 균형차원에서 산촌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의 산지가 대부분 산촌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촌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면적의 46%, 경지면적의 26%, 농가 수의 25%로 국토공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 정도 이지만 산촌 주민이 담당하고 있는 국토관리자로서의 기능, 전통문화 계승자로서의 기능, 환경, 생태자원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 산업적 측면을 보면 농업의존성이 강하지만 농업 기반은 취약한 지역이다. 논면적이 적고 밭 면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높은 해발고와 경사도 등 지형적, 기후적 제약으로 토지 및 노동 생산성이 낮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소득 중 임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정주생활권 측면에서 보면 산간계곡에 따라 분산된 작은 마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가 들고 투자 효과가 분산되는 특성이 있다. 대개 하천상류에 분포되어 있어 산업의 입지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불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불리한 산촌이지만 산촌이 지니는 쾌적한 자연경관과 울창한 숲, 맑은 물, 아름다운 사회·문화적 전통 등의 잠재력을 살리면서 미래의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60년대 이후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국토의 많은 부분이 개발의 열풍 속에서 도시화되어 지난 수세기 동안 간직되어 왔던 자연경관과 사회문화적인 유산들이 파괴되어 갔다. 산촌지역은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자연자원, 사회문화적인 유산이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

현재의 경제적 지위가 열악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복원하기 어려운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국토 전체

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면에 그러한 경제적 열세가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을 떠나 도시로 향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인하여 인구 구성에 있어서는 노령화가 매우 급속하고 심각한 상태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가로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은 이제는 산촌밖에 남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산촌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산촌의 변화된 역할은 첫째, 농림업분야의 생산기지로서의 산촌, 즉, 산림 생산은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생산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산림의 관리보호기능은 물론 생산기지로서의 기능도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생활의 장으로서의 산촌, 최근의 산촌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촌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산촌에서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아울러 산촌의 쾌적한 환경자원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산촌의 이러한 생활 환경 개선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정주공간을 형성하게 되고, 도시로 향했던 인구의 산촌 회귀는 물론 이농자의 기대치의 생활수준을 충족시키는 정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자연환경과 국토보전, 생태자원으로서의 산촌이다. 산림은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매년 많은 재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한 산촌은 이러한 산림의 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토지 보전을 가능케 하며, 잘 관리된 산림생태계는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국제적인 환경규약의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따른 종 보전 및 증식은 물론 풍부한 자연생태계는 깨끗하고 풍성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러한 각 개 지역 산촌의 생물자원 보호와 증식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휴양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산촌, 주 5일제 근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시로 부터의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런 장기 휴가를 산이나 강, 바다 등 자연 속에서 자연을 활용하는 휴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산촌은 이러한 수요증가에 대응해야 할 역할을 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농업, 산촌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산촌은 생태관광과 녹색관광 등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문화의 계승, 학습 교육의 장으로서의 산촌, 도시의 문화적 자원은 산업화와 도시의 확대, 인구의 증가 등으로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퇴화되었지만, 산촌은 그러한 도시에 비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보존이 우수하여 국민적인 문화·전통 및 역사적 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의 자원이 계승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잘 보존되고 계승된 자원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에서의 체험교육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여섯째, 지구환경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산촌,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국내의 정책적인 활동이 활발하지만, 기존의 산림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확대하고 대기를 정화하는 등의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기능을 산촌의 진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1.2. 산촌개발사업과 산촌 실태

○ 개발 기본 지침

산촌종합개발은 풍부한 산림 자원과 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하여 낙후되어가고 있는 산촌지역을 소득 창출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하여 돌아오는 산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촌 개발방식은 산촌이 자연 휴양과 정주 공간, 임업 생산 공간, 자연 생태계 및 국토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유통, 가공, 판매, 산촌휴양시설 등 각 산업간 연계를 통한 산촌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산촌마을의 개발은 100호 단위로 산촌마을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득 기반조성과 소득원 개발 등 소득사업과 관련 각종사업을 산림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이다.

○ 산촌개발사업의 추진실태

우리나라의 산촌개발사업은 1994년 산림청이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 및 산지 위주의 산림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산촌지역을 정책 영역에 포함시켜 산촌지역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림, 산지, 산촌을 포괄하는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산촌개발사업은 쾌적하고 소득이 있는 산촌의 정주권의 건설을 정책 목표로 하여 그 정책수단으로서 정주기반의 조성과 소득원 개발을 통해 낙후된 산촌지역과 산촌주민에 높은 개발 의지를 불어넣고 산촌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산촌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취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촌개발사업은 1995년 강원도 춘천시 지암리를 산촌현대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0년까지 240개 산촌마을을 조성 완료하였다.

산촌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임야를 가지고 있으며, 농경지는 경사전으로 규모가 작다. 경사전은 노동력 투입이 많고, 농업기반시설이 불리하며, 토사유실에 의한 비료성분의 유실로 인한 비료 투입도 많으며, 이것은 비점오염원으로 나타난다. 산촌의 농업은 평야지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고, 수익성도 낮다. 임업 노동의 기회가 적고, 산림 부산물 채취가 많으며, 혼농임업, 산림의 휴양적 이용, 목재 가공산업이나 소재산업 등 산림산업이 부족하다. 산촌은 산림면적은 넓지만 산지의 효율적 이용 미흡, 경사지 농업, 산림산업 부족으로 산림 소득이 낮아 산촌인구 및 노동력 유출, 자금 부족으로 산림 자원 개발 미흡, 산촌의 소득 저하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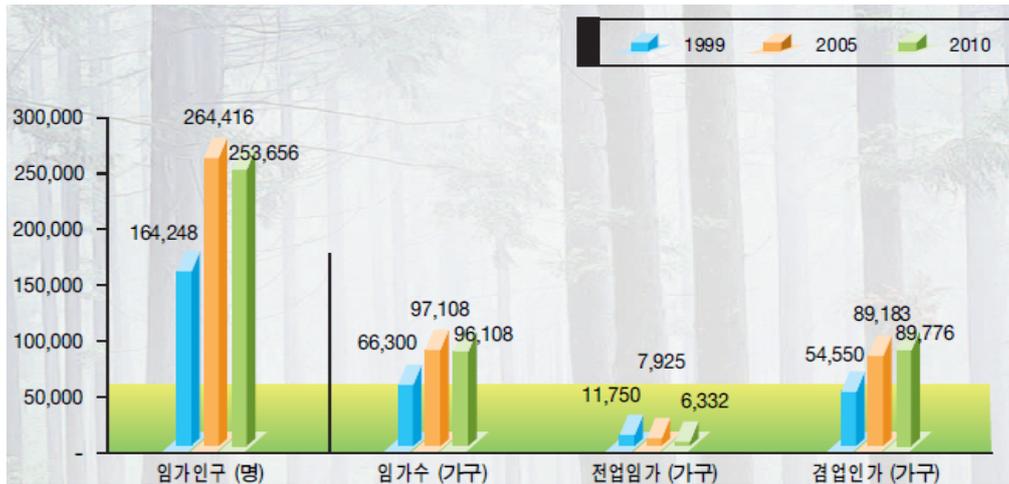
○ 산촌개발 지원정책

산촌개발사업비는 보조금 12억, 융자 2억, 총 14억원이 지원되었으나 2005년도에 융자사업이 없어졌다. 보조금으로는 생활환경개선과 생산기반조성 사업, 산촌녹색체험시설 사업 등을 추진한다. 생활환경개선은 마을기반조성시설, 문화복지시설, 환경정화시설, 기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목공사 등이며, 생산기반조성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촌산업개발, 주민요망사업 등이다. 산촌녹색체험시설사업으로는 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체험시설, 산촌휴양관, 생태공간 조성 및 조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 산촌의 임가 수 및 소득

임가 인구는 1999년에 164,248명이었고 2005년에 264,41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253,656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임가 수도 임가 인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업 임가는 1999년에 11,750가구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에 6,332가구로 감소하였고, 겸업 임가는 1999년에 54,550가구에서 2010년에 89,776가구로 11년 동

안 약 65% 정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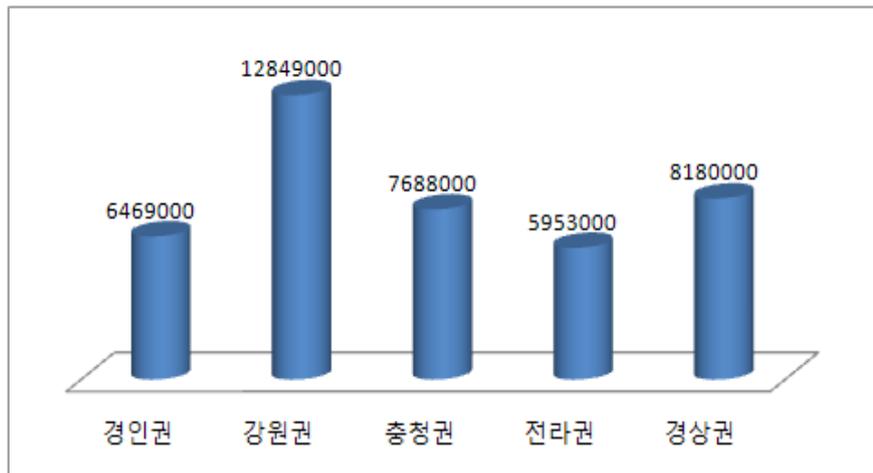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임가(林家)현황



〈그림 2〉 경영주 연령대별 가구수

임가 연령은 60대가 전체의 31.52%로 가장 많고, 50대~70대가 81.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촌은 대부분 6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인구의 유입이 절실하다. 임가 소득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강원권이 제일 많고, 경상권, 충청권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3〉 권역별 임업소득(단위 : 원, 2010년)

산림보유 규모로는 산림이 없는 임가가 81,937가구로 가장 많고, 1ha 미만이 4,124가구, 1~5ha이 6,510가구, 5~10ha이 1,959가구, 10ha 이상이 1,578가구로 나타났다.

2. 산촌 개발 관련 지원 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이외의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보조사업과 용자사업이 있다. 보조사업으로는 사유림협업경영, 임도 및 사방사업, 표고, 밤, 대추, 임산물 생산단지기반시설지원 등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복합경영, 육림과 조림 등 산림 자원 조성사업 등이 있고, 용자사업으로는 임산소득증대 및 이용 가공사업으로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 산림복합경영, 임산물이용 가공시설 지

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등이 있으며, 묘목생산, 간이온실시설지원, 조림 및 육림 등 자원 조성사업, 임업기계화사업, 사유림경영지원 등이 있다.

행안부 소관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가 있으며, 농림부 소관으로는 발기반정비, 농촌용수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권개발, 문화마을 조성,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논농업직접지불,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이 있다.

3.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검토

3.1.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 현황

산촌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잠재 가치가 풍부한 지역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반면, 산세가 험악하여 도시와의 접근성이 불리하고, 통신 시설이 열악하며, 산업 입지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 지역 발전이 느린 지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산촌은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에 의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시설이 소외되고 있으나 산촌의 전통문화와 지역 공동체 의식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며, 산지 채취, 농업의존성이 높으나 농업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며, 토지 및 노동 생산성이 낮은 지역이다.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촌마을은 419읍 4,052리로 구분하였고, 이 중 강원도는 82읍면 740리이다.

강원도 산촌 개발사업은 1995년 강원도 춘천시 지암리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0년에 50개 산촌마을을 조성 완료하였고, 26개 마을이 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총 76개 마을이 조성될 것이다. 주요사업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 소득기반 조성사업, 산촌복합경영사업과 펜션 등 휴양사업, 산촌생활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단위 : 마을)

시·군	사업량	산촌생태마을 현황		
		조성 완료	2011조성(1-2년차)	사전설계마을
합계	76	50	20(11+9)	6(5+1)
춘천시	5	지암('97), 부귀('08)고성('09)	오탄('12), 덕두원('12)	
원주시	4	황둔('03), 운계('06) 둔둔('08)		판대(13)
강릉시	3	대기('02), 삼산('04)	언별('11)	
삼척시	5	중마읍('03), 변천('05) 풍곡('10)	고천('11),여삼('12)	
홍천군	7	자운('01), 천현('05) 신봉('07) 검산('09) 와야('10)	풍천('11), 울전2('12)	
횡성군	4	병지방('03), 신대('06)월현('09)	상대('12)	
영월군	6	내('03), 문산('06) 직동('10)	금마('11)	녹전(13), 문곡(13)
평창군	7	하안미('02), 고길('04) 차항2('08) 탑동('09) 도사('10)	하진부2('12)	백운(13)
정선군	5	회동('00), 몰운('06) 광덕('10), 문곡('10)	임계3('12)	
철원군	1	잠곡('00)		
화천군	5	동촌('03), 삼일('06) 풍산('07) 유촌('09)	서오지('11)	
양구군	5	월명('03), 응진('06) 가오작('10)	오미('11), 두무('12)	
인제군	9	방동('01), 미산('03) 가아('06), 귀둔('07)서화('09), 진동('10)	부평('11)상남3('12)	월학(13)
고성군	3	도원('01), 구성('04)배봉('09)		
양양군	7	여성전('00), 대치('04)	공수전('11), 서림('11)원일전('12), 황이('12)	송천(13)

* 2011년 기준

3.2. 분야별 사업비 비율

강원도의 산촌생태마을 76개소 중 이미 조성된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조성 사업비를 검토하였다.

〈표 3〉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 년도		총금액 (백만원)	1. 생활환경개선		2. 생산기반조성		3. 산촌녹색체험 시설		4. 마을 기획 및 운영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춘천시	1997	지암리	3157	1441	45.64	1716	54.36	0	0	0	0
	2008	부귀리	1400	49	3.5	713	50.93	645	46.07	20	1.43
	2009	고성2리	1215	28	2.305	0	0	1157	95.23	30	2.47
원주시	2003	황둔리	1123	492	43.81	631	56.19	0	0	0	0
	2006	운계리	1400	458	32.71	942	67.29	0	0	0	0
	2008	둔둔리	1146	774	67.5	287	25.07	69	6.02	16	1.4
강릉시	2002	대기리	1112	383	34.44	729	65.56	0	0	0	0
	2004	삼산리	1200	540	45	660	55	0	0	0	0
삼척시	2003	중마읍리	1051	552	52.52	499	47.48	0	0	0	0
	2004	번천리	1200	420	35	780	65	0	0	0	0
	2010	풍곡	1432	283	19.76	498	34.78	621	43.37	30	2.09
홍천군	2001	자운리	1018	678	66.6	340	33.4	0	0	0	0
	2005	천현리	891	571	64.09	320	35.91	0	0	0	0
	2007	신봉리	1400	624	44.57	776	55.43	0	0	0	0
	2009	검산리	1400	33	2.357	211	15.07	1117	79.79	40	2.86
	2010	와아리	1251	50	3.997	225	17.99	951	76.02	25	2
횡성군	2003	병지방리	1200	728	60.67	472	39.33	0	0	0	0
	2006	신대리	1400	417	29.79	983	70.21	0	0	0	0
	2009	월현리	1200	46	3.833	226	18.83	898	74.83	30	2.5
영월군	2003	내리	1156	452	39.1	704	60.9	0	0	0	0
	2006	문산리	1400	625	44.64	775	55.36	0	0	0	0
	2010	직동리	1230	80	6.504	160	13.01	963	78.29	26	2.11
평창군	2002	하안미리	1000	209	20.9	791	79.1	0	0	0	0
	2004	고길리	1200	390	32.5	810	67.5	0	0	0	0
	2008	차항	1400	286	20.43	0	0	1063	75.93	51	3.64
	2009	탑동	1089	155	14.23	192	17.63	722	66.3	20	1.84
	2010	도사	1279	113	8.835	274	21.42	762	59.58	30	2.35
정선군	2000	회동리	1198	1198	100	0	0	0	0	0	0
	2006	몰운리	1400	517	36.93	883	63.07	0	0	0	0
	2010	광덕리	1037	15	1.446	564	54.39	422	40.69	30	2.89
	2010	문곡리	1216	111	9.128	391	32.15	684	56.25	30	2.47

〈표 3〉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현황〈계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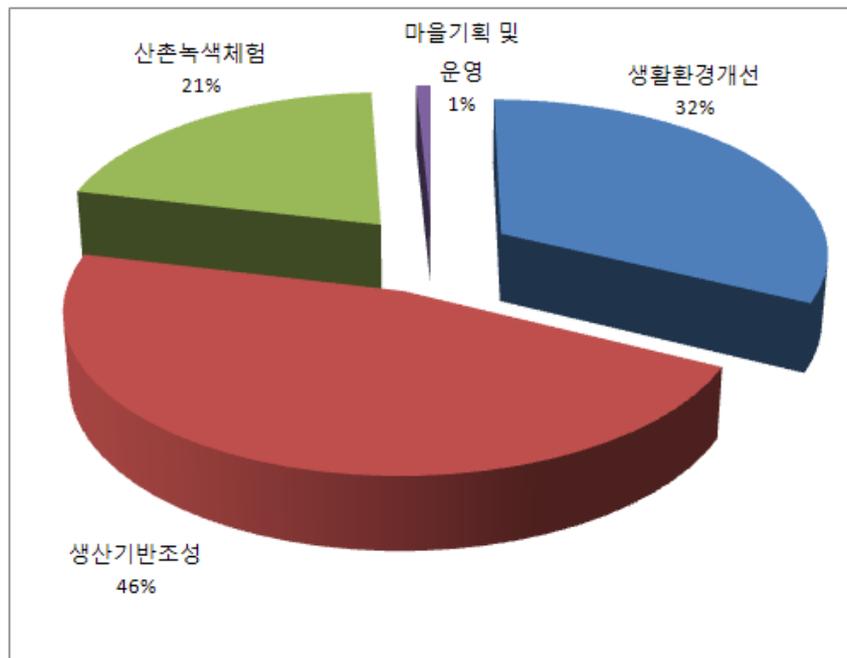
	조성 년도		총금액	1.생활환경개선		2.생산기반조성		3.산촌녹색체험 시설		4.마을 기획 및 운영	
철원군	2000	잠곡리	1055	550	52.13	505	47.87	0	0	0	0
화천군	2003	동촌리	1108	686	61.91	422	38.09	0	0	0	0
	2006	삼일리	1400	368	26.29	1032	73.71	0	0	0	0
	2007	풍산리	1400	828	59.14	572	40.86	0	0	0	0
	2009	유촌리	1735	28	1.614	1446	83.34	231	13.31	30	1.73
양구군	2003	월명리	1145	476	41.57	669	58.43	0	0	0	0
	2006	웅진리	1400	432	30.86	968	69.14	0	0	0	0
	2010	가오작	1265	223	17.63	299	23.64	720	56.92	23	1.818
인제군	2001	방동리	1005	405	40.3	600	59.7	0	0	0	0
	2003	미산리	1451	521	35.91	930	64.09	0	0	0	0
	2006	가아리	1400	323	23.07	1077	76.93	0	0	0	0
	2007	귀둔리	1400	544	38.86	856	61.14	0	0	0	0
	2009	서화리	1231	65	5.28	644	52.32	482	39.16	40	3.25
고성군	2010	진동리	1330	89	6.692	475	35.71	756	56.84	10	0.75
	2001	도원리	1018	473	46.46	545	53.54	0	0	0	0
	2004	구성리	1200	651	54.25	549	45.75	0	0	0	0
양양군	2009	배봉리	1000	19	1.9	214	21.4	737	73.7	30	3
	2000	어성전리	1000	674	67.4	326	32.6	0	0	0	0
	2004	대치리	1200	420	35	780	65	0	0	0	0
합계			63544	20493	32.3	29561	46.5	12972	20.4	511	0.8

자료 : 강원도 자료 정리

* 2008년부터 총 사업비에서 산촌녹색체험시설과 마을 기획 및 운영 예산을 분리시켰음.

산촌생태마을 사업 조성비는 적게는 약 9억에서 31억에 이르며, 대부분이 10억에서 14억 정도이다. 생활환경개선사업비는 평균적으로 32% 정도이며, 초기에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는 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산촌 녹색체험시설사업비는 21%로 나타났다. 산촌녹색체험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적게는 6%에서 많게는 95% 정도까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다. 마을 기획 및 운영부분에 약 1%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비율이 높아져 실제로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마을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

았으나, 점차 생산기반시설이나 산촌녹색체험시설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아져,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 소득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생활환경사업이 중심이었고, 그 후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집중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산촌녹색체험시설 설치로 체험 소득과 숙박시설에 대한 수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또한, 최근에 계획되고 있는 산촌에서는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로 산촌체험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산촌개발사업비의 투자는 산촌의 특성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시설이나 사업에 투자하여 마을 소득으로 연계되어 산촌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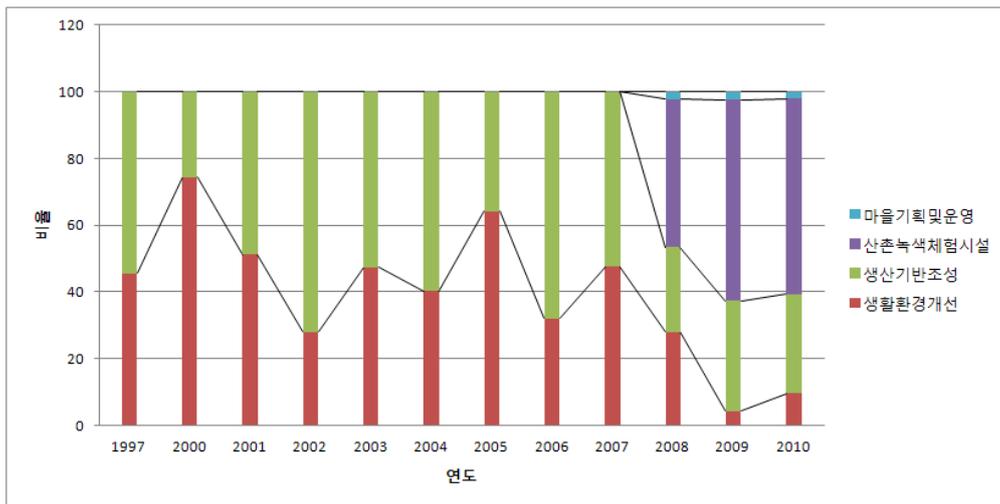
〈그림 4〉 분야별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비율(%)

강원도에서 조성 완료된 50개의 산촌생태마을 중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마을은 2000년에 조성한 정선군 회동리가 100%이며, 원주시 둔둔리, 양양군 어성전리, 홍천군 자운리가 약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마을은 화천군 유촌리가 전체 금액의 83.34%로 가장 높고, 평창군 하안미리가 79.1%, 인제군 가아리가 76.93%, 화천군 삼일리가 73.71%, 횡성군 신대리가 70.21%로 높게 나타났다.

산촌녹색체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마을은 춘천시 고성2리는 95.23%로 가장 높고, 홍천군 검산리가 79.79%, 영월군 직동리 78.29%, 홍천군 와야리가 76.02%, 평창군 차항리, 횡성군 월현리, 고성군 배봉리 등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이었으며, 2008년부터는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줄이고 산촌녹색체험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림 5〉 연도별 분야별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비율(%)

〈표 4〉 산촌생태마을별 분야별 소득

마을명		조성기간	세대수	인구수	총소득(백만원)			농수산물판매
					계	숙박	체험	
계	8		673	1,673	1,815	117	175	1,523
춘천	고성	07~09	70	145	1,256	28	75	1,153
횡성	월현	07~09	64	125	1	1	-	-
인제	서화	07~09	100	333	23	23	-	-
홍천	검산	07~09	111	120	26	25	-	1
평창	차항	06~08	57	201	80	13	60	7
평창	탐동	07~09	46	97	9	4	3	2
화천	유촌	07~09	194	571	60	10	35	15
고성	배봉	07~09	31	81	360	13	2	345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

산촌생태마을 조성기간이 비슷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한 결과, 춘천시 고성리와 고성군 배봉리의 경우는 농산물 판매량이 많은데, 이 지역은 기존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춘천시의 경우는 인근에 자연휴양림이 있고,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창군 차항리와 같은 경우는 산촌녹색체험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체험과 숙박시설로 인한 소득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인근에 스키장이 있어 겨울철 숙박 수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숙박이나 체험 소득이 높은 지역은 산촌생태마을 사업비 이외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과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3.3. 세부사업 검토

3.3.1. 생활환경 개선 사업

	조성 년도		총금액 (백만원)	1생활 환경개선	주요사업
춘천시	1997	지암리	3157	1441	마을회관, 상하수도, 배수로시설, 마을안길, 전기통신시설, 조경시설, 보건진료소
	2008	부귀리	1400	49	정자, 휴게시설, 조경, 지붕녹화, 마을안길정비
	2009	고성2리	1215	28	입구유도사인, 종합안내판
원주시	2003	황둔리	1123	492	건강클리닉시설, 안내시설, 마을안길포장, 산림문화회관, 성황당복원, 수로정비
	2006	운계리	1400	458	소득원도로정비, 오수정화시설, 등산로, 안내판, 해설판, 주차장, 조경, 홈페이지
	2008	둔둔리	1146.4	774	산촌체험관, 입구유도사인, 종합안내판, 입구표석, 산림욕로, 평의자
강릉시	2002	대기리	1112	383	다목적광장, 산림문화회관, 쉼터, 현황판
	2004	삼산리	1200	540	산림문화회관, 인터넷시설, 정자,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 안내판
삼척시	2003	중마읍리	1051	552	마을안길포장, 배수로시설, 마음쉼터(정자), 산림문화회관, 종합안내판, 가로등, 버스승강장, 분리수거함, 춘두부생산공장, 종합정비사업
	2004	번천리	1200	420	산촌문화회관, 산촌정보센터, 종합안내판, 입구유도사인, 조경, 상하수도시설, 화장실
	2010	풍곡	1432	283	입구유도사인, 종합안내판, 쉼터 조성, 조경공사, 가로등 설치
홍천군	2001	자운리	1018	678	산림문화회관, 놀이터, 마을안길, 문화광장, 종합안내판, 상하수도시설, 하천환경개선
	2005	천현리	891	571	녹색관광센터, 소득원도로, 정자, 마을환경정비, 종합안내판, 인터넷시설, 등산로장비
	2007	신봉리	1400	624	녹색관광센터, 종합안내시설, 홈페이지구축, 친수공간조성, 산책로, 정자
	2009	검산리	1400	33	입구유도사인, 종합안내판
	2010	와야리	1251	50	입구유도사인, 종합안내판, 쉼터 조성
횡성군	2003	병지방리	1200	728	산림문화회관, 건강클리닉시설, 조경, 상하수, 오수정화, 정자
	2006	신대리	1400	417	마을회관, 광장, 화장실, 운동장, 산촌전시시설, 조경, 음수대, 안내시설, 홈페이지
	2009	월현리	1200	46	입구유도사인, 종합안내판, 음향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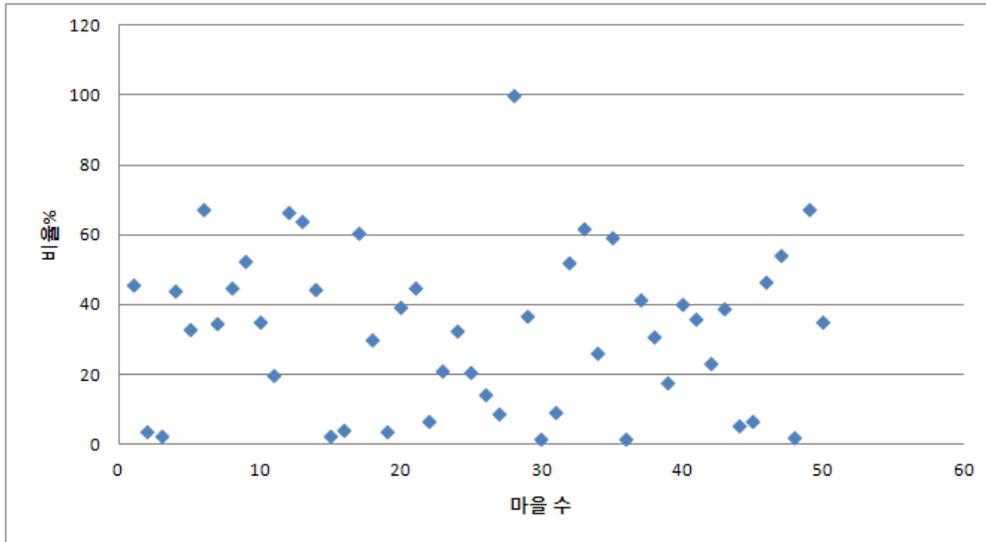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검토 및 활성화 방안

	조성 년도		총금액 (백만원)	1생활 환경개선	주요사업
영월군	2003	내리	1156	452	종합안내판, 안내사인, 산촌회관, 성황당, 마을안길포장, 기념품, 정자, 화장실, 파고라, 산림욕대, 해설판, 오수정화시설, 안내소
	2006	문산리	1400	625	녹색관광센터, 정자, 종합안내시설, 산책로, 줄배, 홈페이지, 머루터널조성
	2010	직동리	1230	80	입구유도사인, 종합안내판, 쉼터 조성
평창군	2002	하안미리	1000	209	인터넷지원, 화장실, 종합안내판, 가로화단, 주차장, 가로등, 목재파쇄기, 학습로개설
	2004	고길리	1200	390	마을홍보시설, 산림문화회관, 전기공사, 분리수거함, 쉼터조성, 산책로
	2008	차항	1400	286	컴퓨터/사무장비, 산책로, 안내판/해설판, 주차장, 휴게공간/쉼터 등
	2009	탑동	1089	155	마을회관 정비, 종합안내판, 쉼터, 상하수도 시설
	2010	도사	1279	113	종합안내판, 입구유도사인, 쉼터 조성
정선군	2000	회동리	1198	1198	상하수도시설, 마을진입로정비, 용수로정비, 마을회관, 쉼터, 공동광장
	2006	물운리	1400	517	녹색관광센터, 정자, 종합안내시설, 홈페이지보완, 창고, 사금채취체험장
	2010	광덕리	1037	15	종합안내판, 시설인지 사인
	2010	문곡리	1216	111	관정개발, 입구유도사인, 성황당진입로 정비
철원군	2000	잠곡리	1055	550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화천군	2003	동촌리	1108	686	주차장및 조경, 녹색관광센터, 육각정자, 계곡탐방로, 오수정화시설, 체육시설, 버스승차대, 상징조형물, 종합안내사인, 숲가마터복원, 전통귀틀집, 안내유도사인
	2006	삼일리	1400	368	다목적광장, 안내소, 등산로, 종합안내판, 정자및 쉼터조성, 주차장, 홈페이지, 놀이터
	2007	풍산리	1400	828	운동장, 주차장, 정자및쉼터, 종합안내판, 산촌문화회관, 조경, 별자리관측시설
	2009	유촌리	1735	28	종합안내판, 입구유도사인
양구군	2003	월명리	1145	476	월명마당조성, 상수도시설, 가로등, 민박단지, 오수정화시설, 홍보시설, 버스승차대
	2006	웅진리	1400	432	마을어귀마당조성, 마을회관보수, 도로보수, 가로등, 상하수도, 등산로, 마을홍보시설,
	2010	가오작	1265	223	공원-쉼터 조성, 터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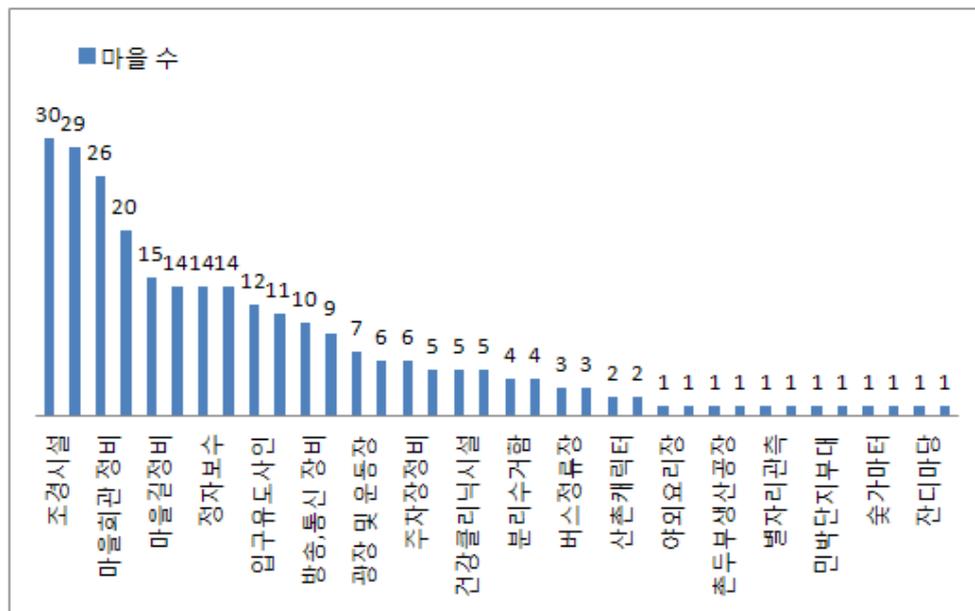
	조성 년도		총금액 (백만원)	1생활 환경개선	주요사업
인제군	2001	방동리	1005	405	산림문화회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정자, 마을 안길포장, 문화광장, 주차장, 소각로, 분리수거함, 종합안내판, 버스승강장, 세월교
	2003	미산리	1451	521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농산촌전시물, 전시물비가림, 안내시설, 건강로, 탐방로
	2006	가아리	1400	323	종합안내판, 안내표지판, 주민공동이용광장, 오페수처리시설, 상수도시설, 조경수식재, 가로등, 야외화장실, 홈페이지구축, 하천재해방지시설
	2007	귀둔리	1400	544	종합안내판, 산림문화휴양관, 부지조성, 오페수처리시설, 컴퓨터, 조경수
	2009	서화리	1231	65	종합안내판, 시설인지사인, 조형물, 안내시설
	2010	진동리	1330	89	시설 조경공사
고성군	2001	도원리	1018	473	산촌회관, 다목적광장, 상수도시설, 배수로정비, 현황판, TV공시청시설
	2004	구성리	1200	651	산림문화회관, 인터넷시설, 방송시설, 가로수식재, 정자, 종합안내판, 마을안길정비
	2009	배봉리	1000	19	종합안내판, 입구유도사인, 시설인지사인
양양군	2000	여성전리	1000	674	마을회관, 동력전기, 마을순환도로, 상수도, 가로등, 화장실, 화수관로설치
	2004	대치리	1200	420	정보센터, 안내시설, 산촌캐릭터, 마을쉼터조성, 건강관리실, 상하수도, 다목적광장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마을별 평균이 32.25%이며, 초기에는 사업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규모가 축소되어졌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정선군 회동리의 경우는 상하수도시설의 정비와 마을 진입도로, 쉼터, 공동 광장 등으로 본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원주시 둔둔리의 경우는 산촌체험관과 삼림욕 도로 등에 투자하였고, 양양군 여성전리의 경우는 마을회관과 마을 순환도로, 건강관리실 등에 주로 투자하였다.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는 조경시설, 종합안내판, 마을회관 정비 등에 많은 마을에서 시설 투자를 하였고, 배수로 시설, 마을길 정비 등이 많았으며, 쉼터 및 공원 조성, 정자 보수, 관리시설 정비, 입구유도 사인, 등산로, 산책로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숲가마 복원, 귀틀집, 성황당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6〉 산촌생태마을 사업 비중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 비율 분포



〈그림 7〉 생활환경개선사업 중 세부사업 분포도

3.3.2. 생산기반조성사업

	조성 년도		총금액 (백만원)	2.생산 기반조성	주요산업
춘천시	1997	지암리	3157	1716	사계절썰매장, 특산물판매장, 임간방목, 창고, 부지정리, 산더덕재배
	2008	부귀리	1400	713	산약초하우스재배, 산나물하우스재배, 산나물노지재배, 장뇌삼노지재배, 야생화식재, 공동작업장
	2009	고성2리	1215	0	
원주시	2003	황둔리	1123	631	산채재배하우스, 표고재배하우스, 특산물판매장, 저온저장고, 녹색관광센터, 등산로정비, 야영데크, 암반관정, 조경수식재
	2006	운계리	1400	942	녹색휴양센터, 임산물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산채재배, 임업체험시설, 숲속의집
	2008	둔둔리	1146	287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 윗나무단지조성, 산채재배단지, 산채재배하우스
강릉시	2002	대기리	1112	729	유통시설(저장고), 산채재배시설, 장뇌삼재배시설, 톱밥제조시설
	2004	삼산리	1200	660	표고재배시설, 산채재배시설, 가족휴양촌, MTB용자전거, 잔디포
삼척시	2003	중마읍	1051	499	오갈피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녹색관광센터
	2004	번천리	1200	780	산채체험장, 녹색휴양센터, 산림욕대, 해설판, 야영데크, 안내소, 저온저장고
	2010	풍곡	1432	498	산약초재배단지, 산채 및 약용수, 표고재배, 저온저장고
홍천군	2001	자운리	1018	340	특산물판매장, 저온저장고, 소득원도로, 건조기, 두릅재배, 더덕재배, 농수로정비
	2005	천현리	891	320	다목적가공시설, 화전체험시설, 저온저장고, 건조기, 특용수재배, 약용수재배
	2007	신봉리	1400	776	임산물가공시설, 장뇌삼, 임간방목, 유실수, 한봉, 산채, 저온저장고, 소득원도로
	2009	검산리	1400	211	산채재배, 산양삼재배, 관수시설
	2010	와야리	1251	225	두릅재배단지, 산더덕재배단지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검토 및 활성화 방안

	조성 년도		총금액 (백만원)	2.생산 기반조성	주요산업
횡성군	2003	병지방	1200	472	안내사인, 인터넷시설, 시설하우스, 더덕재배, 두릅재배, 표고재배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구,문화시설, 자동차야영장, MTB용자전거
	2006	신대리	1400	983	임산물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산채복분자하우스, 원두막, 야영데크, 숲속의집
	2009	월현리	1200	226	산채재배, 음나무식재, 더덕파종, 임산물 가공시설, 특산물 판매시설
영월군	2003	내리	1156	704	더덕, 육모장, 버섯, 특산물판매, 소득원도로, 토종벌, 녹색휴양센터, 저온저장고
	2006	문산리	1400	775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특용수, 약용수, 임간방목, 산촌체험시설, 장뇌삼, 산채
	2010	직동리	1230	160	산채재배단지, 저온저장고
평창군	2002	하안미	1000	791	음나무, 산양삼, 산채단지, 저온저장고, 임산물판매장, 건조기, 산촌휴양시설
	2004	고길리	1200	810	저온저장고, 농,임산물집하장, 산약초재배단지
	2008	차항	1400	0	
	2009	탑동	1089	192	두릅재배, 도라지 재배, 저온저장고
	2010	도사	1279	274	산채 재배, 보경수 재배, 체험하우스, 저온저장고
정선군	2000	회동리	1198	0	
	2006	물운리	1400	883	임산물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산채, 작업로, 산양삼, 산촌휴양시설, 버섯
	2010	광덕리	1037	564	산채하우스, 관수시설, 공동작업장, 산채재배
	2010	문곡리	1216	391	산채재배단지, 산채하우스, 산지 정비, 산채가공실
철원군	2000	잠곡리	1055	505	다목적건조기, 저온저장고, 농임산물집하장, 임산물작업장, 임산물가공공장
화천군	2003	동촌리	1108	422	표고재배단지, 소득원단지 및 도로, 집하장, 저온저장고, 판매장, 화전농체험장
	2006	삼일리	1400	1032	녹색휴양센터, 임산물재배단지, 저온저장고, 건조기, 임산물집하장, 야생화단지
	2007	풍산리	1400	572	임산물집하장, 공동작업장, 임산물가공시설,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시설, 산나물재배시설, 임산물재배단지, 약용수재배단지, 저수지(낚시터체험장)
	2009	유촌리	1735	1446	산채재배, 산양삼재배, 블루베리재배, 조경수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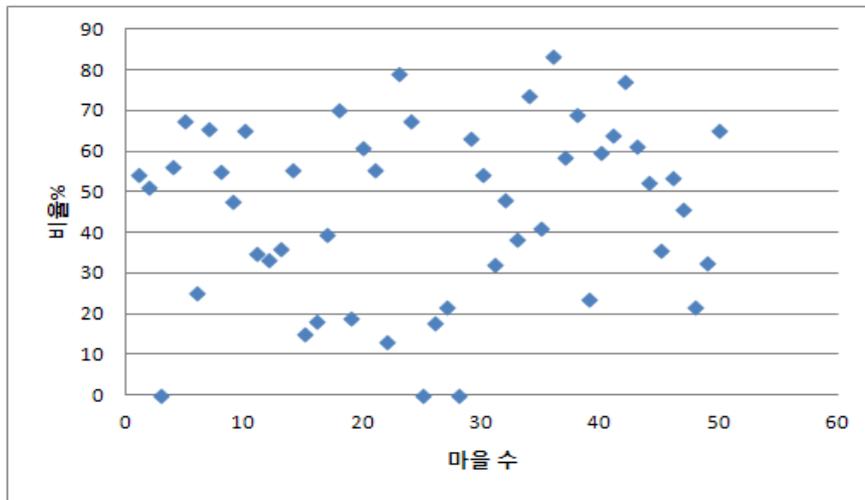
Ⅲ. 산촌생태마을 특성 검토

	조성 년도		총금액 (백만원)	2.생산 기반조성	주요산업
양구군	2003	월명리	1145	669	표고재배단지, 산지소득원단지, 황토방조성, 산촌체 험단지, MTB연습장
	2006	웅진리	1400	968	곰취재배단지, 산지소득원단지, 방목단지, 산림휴양 시설, 임산물집하장
	2010	가오작	1265	299	산채하우스, 오디뽕나무 재배, 임산물 저장시설
인제군	2001	방동리	1005	600	저온저장고, 특산물판매장, 소득원도로, 표고재배, 가축사육장, 산악자전거
	2003	미산리	1451	930	공동소득기반센터, 녹색관광센터, 황토찜질방
	2006	가아리	1400	1077	녹색휴양센터, 임산물재배, 임산물집하장, 저온저장 고, 산림휴양시설,
	2007	귀둔리	1400	856	임산물선별장, 건조기,테이핑기 등, 저온저장고, 산 채재배
	2009	서화리	1231	644	산채재배하우스, 저온저장고, 산채재배, 체험로정 비, 매화 식재
	2010	진동리	1330	475	산채 하우스 및 재배단지, 토종벌, 임산물 저장시설
고성군	2001	도원리	1018	545	특산물판매장, 숲속의 집, 농로 등, 향토수식재, 조 경공사, 물막이공사
	2004	구성리	1200	549	산머루재배, 산채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체험농장, 태양광가로등, 버스승강장
	2009	배봉리	1000	214	산채재배하우스, 저온저장고, 특용수 식재, 가로수 식재(매화)
양양군	2000	어성전 리	1000	326	이동식화장실, 오수처리장, 관정개발, 방갈로, 전기시 설, 안내간판, 등받침의자, 무릎받침의자, 낚시터및물 놀이장, 자연관찰로, 취사장, 계단, 목재가공공장
	2004	대치리	1200	780	산촌체험단지, 저온저장고, 야외버섯요리장, 산촌체 험센터, 느타리재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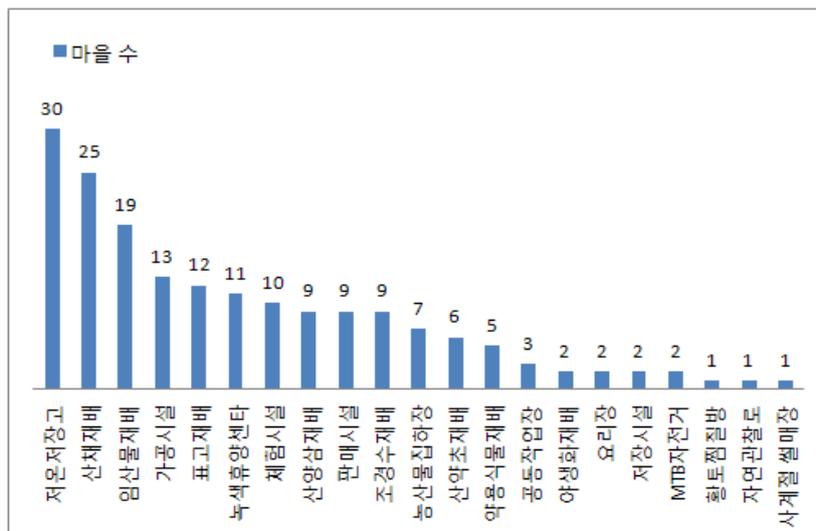
생산기반조성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중 평균적으로 4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마을별 투자비율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비율을 보면, 화천군 유촌리는 83.34%로 가장 높고, 평창군 하안미리가 79.1%, 인제군 가아리가 76.93%, 화천군 삼일 리가 73.71%, 횡성군 신대리가 70.21%로 높게 나타났고, 춘천시 고성리, 평창군 차항리, 정선군 회동리 등의 경우는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는 마을도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가 30개 마을로서 가장 많았고, 산채재배단지 조성과 임

산물 재배가 많은 마을에서 추진하였으며, 가공시설, 표고버섯재배, 녹색휴양센터, 체험 및 판매시설, 산양삼 재배, 조경수 재배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예를 들면 야생화 재배, 산악자전거, 황토방, 사계절 썰매장 등이 있었다.



〈그림 8〉 산촌생태마을 사업 비중 생산기반조성사업에 투자한 비율 분포



〈그림 9〉 생산기반조성사업 중 세부사업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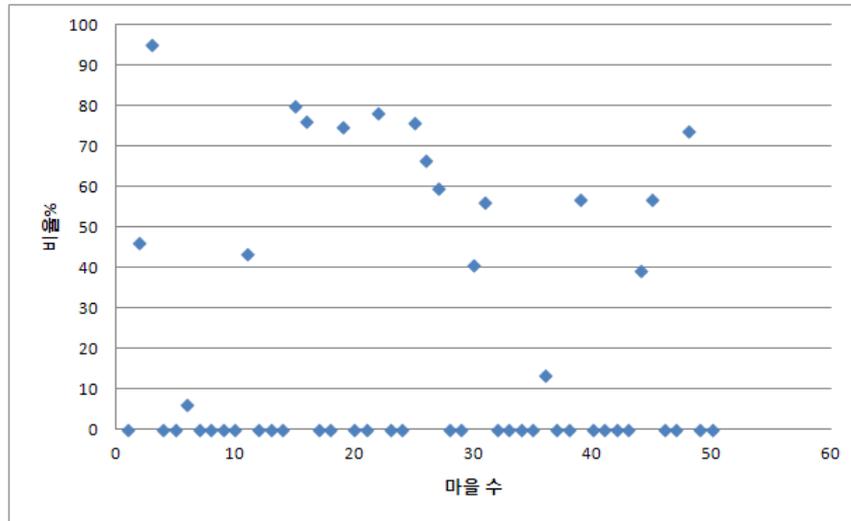
3.3.3. 산촌녹색체험시설

	조성 년도	총금액 (백만원)	3.산촌녹색체 험시설		주요산업
춘천시	1997	지암리	3157	0	
	2008	부귀리	1400	645	물레방아, 출렁다리, 모험체험공간, 역사의 길 조성, 하늘의 길 조성, 안내시설, 건강관리시설
	2009	고성2리	1215	1157	산촌휴양야생화단지, 산촌휴양체험단지
원주시	2003	황둔리	1123	0	
	2006	운계리	1400	0	
	2008	둔둔리	1146	69	부지조성, 약수터 조성, 야생화 단지조성, 야외무대, 산책로 및 조경수 식재, 잔디마당조성, 등산로 보수, 평의자
강릉시	2002	대기리	1112	0	
	2004	삼산리	1200	0	
삼척시	2003	중마읍리	1051	0	
	2004	번천리	1200	0	
	2010	풍곡	1432	621	산바람집 체험단지, 산악체험시설, 야영장, 쉼터
홍천군	2001	자운리	1018	0	
	2005	천현리	891	0	
	2007	신봉리	1400	0	
	2009	검산리	1400	1117	용오름산터, 산울림휴양관
	2010	와야리	1251	951	산촌휴양관, 쉼터조성, 안내판
횡성군	2003	병지방리	1200	0	
	2006	신대리	1400	0	
	2009	월현리	1200	898	산촌체험시설
영월군	2003	내리	1156		
	2006	문산리	1400	0	
	2010	직동리	1230	963	산촌문화휴양관, 폐교리모델링, 등산로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검토 및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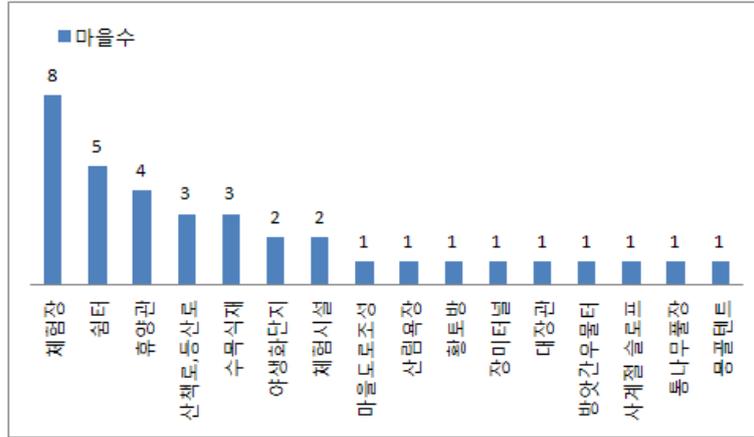
	조성 년도	총금액 (백만원)	3.산촌녹색체 험시설		주요산업
평창군	2002	하안미리	1000	0	
	2004	고길리	1200	0	
	2008	차항	1400	1063	사계절 슬로프, 제설기, 통나무 풀장, 쉼터, 방책시설, 대장간, 동물경기장 조경시설, 다목적 체험마당, 방앗간 우물터
	2009	탑동	1089	722	탑골생태마당(연못, 생태체험관, 산책로, 조경수 식재 등)조성
	2010	도사	1279	762	쉼터 조성, 산촌체험지구 조성, 산림스포츠키구 조성
정선군	2000	회동리	1198	0	
	2006	물운리	1400	0	
	2010	광덕리	1037	422	산채체험관, 산촌문화관, 등산로, 산책로
	2010	문곡리	1216	684	녹색관광센터, 산책로, 야외공연장
철원군	2000	잠곡리	1055	0	
화천군	2003	동촌리	1108	0	
	2006	삼일리	1400	0	
	2007	풍산리	1400	0	
	2009	유촌리	1735	231	삼림욕장 조성
양구군	2003	월명리	1145	0	
	2006	웅진리	1400	0	
	2010	가오작	1265	720	산촌문화회관 건축
인제군	2001	방동리	1005	0	
	2003	미산리	1451	0	
	2006	가아리	1400	0	
	2007	귀둔리	1400	0	
	2009	서화리	1231	482	산촌하우스, 다목적구장, 정자, 수목식재
	2010	진동리	1330	756	산촌문화회관, 트래킹코스 정비
고성군	2001	도원리	1018	0	
	2004	구성리	1200	0	
	2009	배봉리	1000	737	산림문화휴양관, 황토방, 산촌운동장, 정자, 봉화봉, 장미터널, 몽골텐트
양양군	2000	어성전리	1000	0	
	2004	대치리	1200	0	

산촌녹색체험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중 평균적으로 20.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춘천시 고성리의 경우 95.23%로 산촌휴양야생화단지, 산촌휴양체험단지 등에 투자하였다. 홍천군 검산리의 경우는 79.79%로 용오름산터와 산울림휴양관에 투자하였다. 반면에 원주시 둔둔리의 경우는 야생화단지 조성, 산책로 및 조경수 식재 등 마을 환경 정비 등에 주로 투자 하였고, 또한 2007년까지는 산촌녹색체험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2008년부터 사업비에 반영하여 투자하였다. 따라서 초기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한 마을은 주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해 투자하였다.



〈그림 10〉 산촌생태마을 사업 비중 산촌녹색체험시설사업에 투자한 비율 분포

세부사업으로 가장 많은 시설이 체험장 시설이 8개 마을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쉼터, 휴양관, 산책로 등이 있었고, 삼림욕장, 장미터널, 대장간, 통나무풀장 등도 나타났다.



〈그림 11〉 산촌녹색체험시설사업 중 세부사업 분포도

3.3.4. 마을 기획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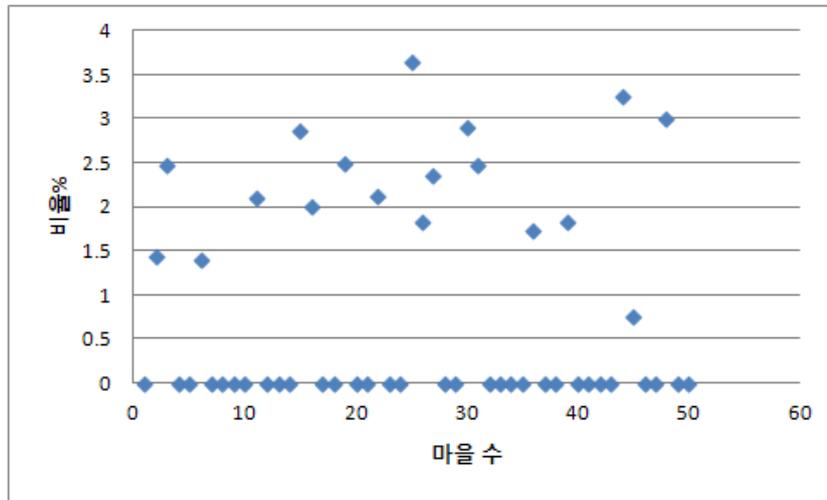
	조성 년도	마을명	총금액 (백만원)	마을 기획 및 운영	주요산업
춘천시	1997	지암리	3157	0	
	2008	부귀리	1400	20	마을홍보장비
	2009	고성2리	1215	30	마을컨설팅
원주시	2003	황둔리	1123	0	
	2006	운계리	1400	0	
	2008	둔둔리	1146	16	홈페이지 및 컴퓨터 등,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강릉시	2002	대기리	1112	0	
	2004	삼산리	1200	0	
삼척시	2003	중마읍리	1051	0	
	2004	번천리	1200	0	
	2010	풍곡	1432	30	주민교육
홍천군	2001	자운리	1018	0	
	2005	천현리	891	0	
	2007	신봉리	1400	0	
	2009	검산리	1400	40	홈페이지, 주민교육, 마을브랜드 개발
	2010	와야리	1251	25	홈페이지 구축, 홍보마케팅, 리더 및 주민교육
횡성군	2003	병지방리	1200	0	
	2006	신대리	1400	0	
	2009	월현리	1200	30	홍보마케팅, 리더 및 주민교육
영월군	2003	내리	1156		
	2006	문산리	1400	0	
	2010	직동리	1230	26	홈페이지 구축, 홍보마케팅, 리더 및 주민교육

	조성 년도		총금액 (백만원)	마을 기획 및 운영	주요산업
평창군	2002	하안미리	1000	0	
	2004	고길리	1200	0	
	2008	차항	1400	51	교육비, BI/포장재 개발, 홈페이지 구축/관리
	2009	탑동	1089	20	마을 컨설팅, 주민 교육
	2010	도사	1279	30	리더 및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홈페이지
정선군	2000	회동리	1198	0	
	2006	몰운리	1400	0	
	2010	광덕리	1037	30	홈페이지(전자상거래), 홍보마케팅, 리더 및 주민 교육, 브랜드 개발
	2010	문곡리	1216	30	홈페이지, 홍보마케팅,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 브랜드 개발
철원군	2000	잠곡리	1055	0	
화천군	2003	동촌리	1108	0	
	2006	삼일리	1400	0	
	2007	풍산리	1400	0	
	2009	유촌리	1735	30	마을 컨설팅
양구군	2003	월명리	1145	0	
	2006	웅진리	1400	0	
	2010	가오작	1265	23	주민 교육 및 견학, 홈페이지 구축
인제군	2001	방동리	1005	0	
	2003	미산리	1451	0	
	2006	가아리	1400	0	
	2007	귀둔리	1400	0	
	2009	서화리	1231	40	홍보마케팅, 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 브랜드 개발
	2010	진동리	1330	10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상품 디자인
고성군	2001	도원리	1018	0	
	2004	구성리	1200	0	
	2009	배봉리	1000	30	홈페이지 구축, 빔프로젝트, 홍보마케팅, 리더 및 주민교육
양양군	2000	어성전리	1000	0	
	2004	대치리	12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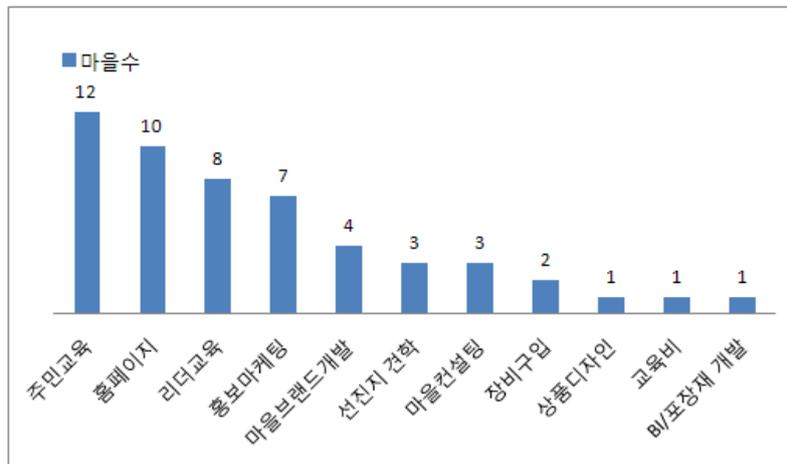
마을 기획 및 운영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0.8%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까지는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으며, 2008년부터 사업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낮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평창군 차항리의 경우는 3.64%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비와, BI개발 및 포장재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위해 투자하였고, 인제군 서화리의 경우는 홍보마케팅, 리더 및 주민 교육, 마을 브랜드 개발 등에 투자하였다. 2008년 이후의 마을 기획 및 운영 사업비의 대부분이 전체 사업비의

1~3% 이내에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을 주민교육과 마을 홈페이지 개발이 가장 많고, 홍보마케팅, 리더 교육, 선진지 견학, 마을 컨설팅, 장비 구입, 상품 디자인, BI/포장재 개발 등이 있다.



〈그림 12〉 산촌생태마을 사업비 중 마을 기획 및 운영사업에 투자한 비율 분포



〈그림 13〉 마을 기획 및 운영사업 중 세부사업 분포도

4.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상 문제점

강원도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강원도내 산촌생태마을 중 소득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몇 곳을 대상으로 마을 대표 혹은 운영자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녹색체험시설사업에 총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 평창군 차항리의 경우는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다. 숙박 및 체험시설에 의한 수익이 많고, 마을 주민간의 갈등도 없어, 마을 주민들이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다. 추가 사업 희망 분야는 대형주차장 확보와 부대시설 정비,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후계자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을이 활성화되고 있는 원인은 주변에 스키장이 있어 겨울철 숙박시설의 활용도가 높으며, 산촌생태마을 사업 이외에 건강장수마을사업 등 총 5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사료된다.

녹색체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춘천시 고성리의 경우는 숙박시설과 체험시설 운영이 잘되고 있으며, 마을의 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의한 소득이 높다. 마을 소득은 소득분배원칙을 세워 합리적으로 분배하므로 주민간의 갈등은 없지만 주민들이 노령화되고 있어 젊은 후계자 그룹의 영입이 필요하다. 추후 필요시설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물놀이시설이나 운동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을이 활성화되고 있는 요인은 주변에 자연휴양림이 있고, 등산 인구가 많아 농산물 판매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다.

인제군 서화리의 경우는 숙박, 체험시설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주 소득으로는 여름철 피서객과 군인 가족의 면회로 인한 숙박 등이며, 일부 농산물 판매수익도 있다. 주민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 지역 역시 산촌생태마을사업 이외에 2개의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홍천군 자운리의 경우는 초기에 산촌사업을 시작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 소득은 고랭지채소를 중심으로 한 산채, 약초 재배 등이 있으며, 주민간의 갈등은 없는 편이다. 필요한 사업은 농촌체험시설, 산채재배, 임도 활용한 산악레포츠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역에 젊은 층은 많으나 대단위 농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주민교육은 농번기를 피하여 겨울철 농한

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를 바란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주민 면담,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초기에 사업을 시행한 마을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여 마을의 환경 정비에는 기여했으나 지역의 소득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다소 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타 분야의 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 규모를 늘려 소득을 올리는 마을도 있다. 둘째는 생산기반조성사업만으로는 마을 소득을 올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2008년부터 산촌 계획에 산촌녹색체험시설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즉, 마을의 주 소득원인 농림산물 생산과 함께 숙박 및 체험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셋째는 마을 주변에 대도시가 있거나 관광자원이 있어 산촌마을과 연계시켜 소득을 올리거나 산촌생태마을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집중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시켜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있다. 넷째는 고랭지농업, 환경농업 등 대단위 농업을 하고 있는 마을은 대단위 농업인과 숙박 및 체험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로 구분되는 마을도 있다. 순수 농림업을 추진하는 주민과 체험, 숙박업을 추진하는 주민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여 산촌 마을 전체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산촌생태마을 중 타 부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지원 받아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아직 많은 마을이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을계획 수립 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촌생태마을 사업만으로는 산촌을 활성화시키기는 부족하므로 산촌생태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타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추진 주체에 대한 철저한 주민 교육, 경영 마인드 교육을 통한 마을 리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1. 산촌생태마을 구분

지역구분의 기준은 우선 사업예산의 배분 비율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60% 이상 투입한 지역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60% 이상 투입한 지역(초기 사업 지역 중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투자한 지역 포함), 녹색산촌체험시설에 60% 이상 투입한 지역, 녹색산촌체험시설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고르게 투입한 지역 등과 산촌생태마을 주변지역에 대도시 및 자연휴양림,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지역의 구분은 기초자료에 의한 개략적인 구분으로 분야별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임의적인 구분이다.

〈표 5〉 투자 사업비 및 주변 여건에 따른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구분

구분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집중한 마을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집중한 마을	산촌녹색체험 시설에 집중한 마을	산촌녹색체험 시설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투자한 마을
주변지역에 도시, 휴양지, 관광지가 있음	원주시 둔둔리, 정선군 회동리,	춘천시 지암리, 원주시 황둔리, 원주시 운계리, 영월군 문산리, 정선군 물운리, 철원군 잠곡리	춘천시 고성리, 평창군 차항리	
주변지역에 도시, 휴양지, 관광지가 없음	홍천군 자운리, 홍천군 천현리, 횡성군 병지방리, 화천군 동촌리, 화천군 풍산리, 양양군 어성전리	강릉시 대기리, 강릉시 삼산리, 삼척시 중마읍리, 삼척시 변천리, 홍천군 신봉리, 횡성군 신대리, 영월군 내리, 평창군 하안미리, 평창군 고길리, 화천군 삼일리, 화천군 유촌리, 양구군 월명리, 양구군 웅진리, 인제군 방동리, 인제군 미산리, 인제군 가아리, 인제군 귀둔리, 양양군 대치리	홍천군 검산리, 홍천군 와야리, 횡성군 월현리, 영월군 직동리, 평창군 탑동리, 고성군 배봉리	춘천시 부귀리, 삼척시 풍곡리, 평창군 도사리, 정선군 광덕리, 정선군 문곡리, 양구군 가오작리, 인제군 서화리, 인제군 진동리

2. 미래지향적인 산촌 조성의 전제

미래에도 지속적인 산촌생태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과 환경을 활용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촌문화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전략과 특화분야를 선정하여 관광 상품화시키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찾아야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제되어야할 몇 가지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2.1. 지역 환경 및 자원 조성

산촌계획을 위해서는 지역 주변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자연환경 분석은 지형·수리·토양·식생·야생동물·기후 등의 요소, 인문·사회 환경 분석은 인구구조, 경제구조, 문화적 특성, 토지이용 현황, 교통망과 통행량 등의 요소들이 그 대상이 되고, 관광 환경의 경우에는 거시적 및 미시적 추세, 관광자원 현황, 편의시설 현황 등의 요소가 분석의 대상이 된다(박석희, 2002). 특히 관광자원 분석을 위해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자원, 과거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자원을 구분하여 조사·분석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과 같은 농산촌 자연환경, 특히, 잘 가꾸어진 마을 숲이 있는 마을은 방문객들에게 자주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산촌 주변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길이 산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산촌지역은 자연과 어우러져 산촌다운 정겨움을 지니고 있으나 일부의 산촌은 도시로의 인구 이동에 의해 폐가 및 휴경지가 발생되고, 농자재 폐기물 방치, 축산분뇨 악취, 마을 환경 미정비 등 마을이 정비되지 않아 자연휴양림 등 마을 주변 관광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농가나 농사현장 등 산촌지역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들을 마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사 체험, 농가공 체험, 농가 체험 등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산촌 환경 정비시 도시화가 아닌 산촌다운, 산촌 어메니티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역의 농산물을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소포장, 가공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마을의 농산물, 특산품 뿐 아니라 잘 정비된 산촌, 전통 농자재, 문화, 유적, 전통 농사법, 전통 음식 등 마을의 모든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활용방안의 모색일 필요하다.

마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추진하고, 마을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농촌의 역사, 전통 농업, 농자재 가공 등 전통적인 기술 및 지역 전통문화를 잘 알고 있어 지역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게 유

6) 박석희 등(2009) 내용 일부 재정리

도해야 한다.

2.2. 지역 고유의 이미지 소재 개발

상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상품의 상징을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 상품 소비행위란 관광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 된다.(박석희 역, 1994).

관광공간의 고유한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고유한 이미지 소재를 추출해야 한다. 그런 후에 이들 소재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구비하게 하고, 나아가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고유한 이미지가 창출된다. 소재 추출을 위해서는 자연적 소재 가운데서 아름답고, 특이성을 지닌 소재, 역사적 측면에서 정통성을 지닌 소재,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고유성을 지닌 소재 이어야 한다. 역사적 측면에서 정통성이 없는 것은 다른 곳에서 쉽게 모방하거나 더 크고, 더욱 자극적인 것을 도입하게 되면,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성은 사람들의 관광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양질의 관광경험을 추구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박석희, 1999).

2.3. 지역 발전 전략 모색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SWOT⁷⁾분석을 하게 된다. 지역내부의 강점과 약점요인, 그리고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먼저 분석하게 된다. 여기서 강점과 약점 요인은 경쟁 지역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인식되는 강점과 약점을 가리키고, 기회와 위협요인은 외부환경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인을 가리킨다. 분석된 요인들을 가지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이용하고, 위협에 대응하고 약점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이를 지역발전 전략으로 구사하게 된다.

이 분석은 지역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므로 지역의 전반적인 방향을 찾고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WOT분석은 지역의 핵심역량과 자원을 평가하

7) SWOT : S(Strength), W(Weakness), O(Opportunity), T(Threat)

여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첫째, SO전략은 내부 강점을 활용하고 외부기회를 찾는 전략으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고, 둘째, ST전략은 내부 강점을 활용하고 외부위험을 차단하는 전략으로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며, 셋째, WO전략은 내부약점을 보완하고 외부기회를 잘 활용하는 전략으로 지역 약점의 극복을 통하여 시장기회를 활용하는 것이고, 넷째, WT전략은 내부약점을 보완하고 외부위험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지역 내부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2.4. 지역의 특화분야 선정

기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지역 자원의 집중이므로 이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이 바람직하다. 우선 어떤 역량을 지역의 핵심역량으로 키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특화분야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어떤 분야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잘 분석해야 한다. 특히, 지역 리더의 예지와 의지에 따라 추진 강도나 방향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지역 리더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대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객, 소비자의 마음이다. 지역에서 아무리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된다. 따라서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지역이 제공하는 가치를 고객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등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특화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특화분야의 관광 상품화

한 지역의 많은 자원 가운데서 하나 또는 몇 가지 자원을 선정하고, 이 선정된 자원이 방문객에게 흥미로운 경험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된 풍습·신화·이야기 등을 총동원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해석 및 포장의 과정이 조합과정이다(박혜선, 2006).

이러한 해석과정은 기존 지역자원의 요소들이 지니고 있던 맥락을 해체하고 새로운 맥락을 구성하는 맥락재구성의 과정이다(박석희 역, 1996).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만

들어지는 핵심 상품은 환타지, 향수, 즐거움, 자부심 같은 무형의 생각과 감정들이다. 우리가 소비를 한다는 것은 특히 여기서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것은 자원의 물리적 상태의 상품이 아니라, 그 순간의 체험이다. 이 체험이 핵심 상품이 되는 것이다(박혜선, 2006).

산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믿음이 갈 수 있는 상품생산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신뢰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증산 위주의 고투입 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지나친 농약 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를 야기시키고, 국제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에 적극적인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하고, 친환경농산물 관리는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는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3종류가 있다.

강원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가 매년 늘어 2007년 9월 현재 1,172건이며, 그 중 무농약 농산물이 가장 많고, 일반농산물에서 저농약 농산물로 바뀐 건수도 385건으로 늘고 있으며,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산물 생산 건 수도 275건으로 강원도 농업도 청정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장소마케팅 및 유기적인 건축물 창조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은 특정 지역이나 도시 또는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지역의 유·무형의 자산과 이러한 자산을 통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생산물들을 자원으로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민은 물론 기업과 고객들이 선호하는 공간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외부에 알리고, 이 공간과 콘텐츠가 지닌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의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일련의 활동이다. 따라서 장소마케팅은 지역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기업가와 관광객 심지어 그 장소의 주민들에게 그곳이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다(Kearns & Philo, 1993).

장소마케팅의 목적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최우선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의 산물을 구입하게, 그리고 기업가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장소마케팅을 위해서는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장소 홍보, 이벤트나 축제 개최, 자연이나 문화전승의 복원·보전, 문화거리의 지정·정비 등의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건축물 하나만이라도 특징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은 그 독특한 모습으로 세계적 관심거리가 되었으며, 일본 구마모토 현 오구니 산골마을은 지역의 삼나무로 실내체육관을 지어 일본에서 화젯거리가 되었다(황태규, 2006). 분명히 자연은 관광시설의 건축설계에 영감을 주는 근원이다.

그러나 최근 건축되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시설들은 혼잡한 도시의 건물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농산촌에 들어서는 관광휴양시설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건물의 색채와 형태가 부동산 시장논리에 따라 지어졌고, 생태관광을 위한 경우에도 지역의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상품 개발과 마을의 새로운 사업 개발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별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위한 마을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나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3. 산촌 활성화 방안

3.1. 중점 사업별 활성화 방안

3.1.1. 생활환경개선사업 중심 마을

강원도에서 조성 완료된 50개의 산촌생태마을 중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마을은 2000년에 조성한 정선군 회동리가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원주시 둔둔리, 양양군 어성전리, 홍천군 자운리가 전체 사업비의 약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들은 초기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마을이다.

정선군의 회동리나 원주시의 둔둔리의 경우는 주변지역에 관광지나 자연휴양림, 대도시가 있어 연계 발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체험, 숙박시설 사업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주변지역에 연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 특성을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방향을 설정한다. 우선적으로 임산물을 중심으로 한 농림특산물 생산에 중점적인 투자를 해야 할 지역은 마을 기업으로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주변 자원을 잘 이용한 체험시설을 보강 투자를 추진하도록 한다.

양양군 어성전리나 홍천군 자운리의 경우는 주변지역에서 연계 활성화시킬 자원이 적으므로 마을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어성전리는 계곡을 잘 활용한 펜션을 활성화시키고, 자운리의 경우는 주변 산림이나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활성화를 추진한다.

3.1.2. 생산기반조성사업 중심 마을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마을은 화천군 유촌리가 전체 금액의 83.34%로 가장 높고, 평창군 하안미리가 79.1%, 인제군 가아리가 76.93%, 화천군 삼일리가 73.71%, 횡성군 신대리가 70.21%로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주변에 대도시나 관광지가 없는 지역으로 농특산물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산촌마을이 산채재배와 약용식물, 산양삼 재배를 하고 있다. 이 수입이 마

을의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재배단지를 규모화시켜 지역의 대표 작물로 만들거나 가공상품을 생산을 통하여 마을 기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산촌 체험,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산촌 마을 단위만 가지고 사업이 어려울 경우는 인근 마을과 연계를 통한 기업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3.1.3. 산촌녹색체험시설 중심 마을

산촌녹색체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마을은 2008년 이후 부터이며, 춘천시 고성2리는 95.23%로 가장 높고, 홍천군 검산리가 79.79%, 영월군 직동리 78.29%, 홍천군 와야리가 76.02%, 평창군 차항리, 횡성군 월현리, 고성군 배봉리 등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마을 중에 주변에 배후 도시, 자연휴양림, 리조트와 같은 숙박 휴양지, 스키장 등이 있어 연계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자원과 멀리 떨어진 산촌지역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주말이나 여름 휴가철에 주로 방문하고 주중이나 다른 계절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어 시설관리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마을은 생산기반시설에 추가 투입하여 사업을 규모화시켜 생산 및 가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 및 체험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화하여 자연 휴양 및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방문객을 사계절 마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특색이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잠재 방문객의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1.4. 산촌녹색체험시설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분산 투자 마을

2008년 이후에 조성된 마을로 춘천시 부귀리와 삼척시 풍곡리, 정선군 광덕리와 문곡리, 양구군 가오작리, 인제군 서화리와 진동리 등의 마을이다. 이 마을 중 타 분야 사업비를 받아 마을의 사업 규모를 확장한 지역에는 지역 소득과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사업의 투자만으로는 임산물 생산이나 체험 숙박 등 규모면에서 부족하므로 장

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산물 생산 규모를 늘려 임산 가공을 통하여 지역 소득을 올리고, 이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산촌 숙박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3.2. 인적·물적 자원 활용방안

산촌지역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각종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생태자원, 경관자원 등 자연자원이 우수한 지역이고, 이외에도 자연휴양림이나 리조트, 스키장 등 관광지와 인접되어 있거나, 도시지역과 인접되어 있으므로 산촌마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스키장 주변지역의 산촌마을은 겨울철 농한기에 스키장 숙박객들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자연휴양림 주변에서도 숙박 및 체험 방문객들이 많아 수익성이 높으므로 주변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한다.

산촌마을은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지역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할 수 없지만 과거의 경험과 산촌의 변화상, 지역 자원의 역사, 지역의 문화 등 마을과 주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잘 활용하여 각각의 구성원에 대한 역할을 주어 활동하도록 한다.

또한 마을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마을 전 구성원이 마을을 안내하고 마을에 관한 역사와 자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주민참여 교육, 마을 리더 양성교육, 지역정보 교육, 지역상품 개발교육, 서비스 교육 등이 있다.

주민참여 교육은 마을을 찾는 이용객이나 도시주민들이 마을을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 주민들이 마을 환경 개선이나 친절, 마을에 대한 정보, 마을 상품 개발 등을 마을 주민 스스로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리더 양성 교육은 마을 환경 정비, 상품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마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 기존의 마을 이장, 부녀회,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귀농인, 귀촌인과 함께 리더그룹을 조성하여, 마을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 실시한다. 지역정보 교육은 지역의 유래,

자연자원, 지역농산물 정보, 지역특산물 정보 등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방문객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마을 원로, 특산물 등 생산 농가 등 분야별 마을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토록 한다.

지역 특산품이 없는 지역에서도 지역 농림산물을 이용하여 상품 개발을 하여 마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서비스 교육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주로 고랭지채소, 산채 등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매시장이나, 위탁판매 방식을 취하다 보니 소비자와 직접적인 상거래가 적어 상품 판매에 대한 서비스 의식이 적다, 또한 식당이나 민박, 펜션 등에서도 친절과 청결 면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한다.

3.3. 홍보마케팅

일부마을에서는 마을에 대한 정보나 상품에 대한 홍보는 마을 홈페이지나 시군홈페이지 등에 소개되고 있으나 홍보가 미흡하여 마을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마을의 자연자원, 농사 관련 자원, 전통자원 등 마을 자원과 숙박, 음식, 특산품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팸플릿을 만들어 마을회관이나 마을 매점, 식당, 숙박지, 주변 관광지 안내소 등에 전시하거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도록 추진한다.

마을내 숙박시설, 음식점, 특산물, 체험프로그램, 마을 경관 등을 담은 마을 홍보 팸플릿을 제공하고, 마을 회관, 마을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마을을 찾는 이용객이 쉽게 마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숙박시설, 음식점, 지역의 농특산물을 개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하더라도 주 소비자를 마을로 유도하여 마을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마을 소득 증대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마을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욕구의 유형에 따라 이에 적합한 환경이나 상품개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마을의 농특산물의 경우 이용객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구매의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산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채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생산체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산채류의 향과 영

양성분, 약리작용 등 산채류의 특징을 부각시킨다. 개인들에 의해 생산되는 소규모 물량 소비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는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소규모의 생산품의 판매는 지금의 방식으로도 충분하다.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마을단위나 리단위, 면단위의 생산체계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 추진해야 할 것은 공동 생산품에 대한 상표, 즉,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상품의 품질이 미각을 자극한다면 브랜드는 시각을 자극하는 것이다. 제품의 품질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로는 포장방법의 개선에 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소포장으로 먹음직스럽게 포장한다. 셋째는 이런 상품을 홍보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강원도 및 시군홈페이지는 물론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홈페이지를 만들어 지역을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마을별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하거나 판매할 경우 시간적인 절약은 물론 중간 상인에 지불되었던 수수료, 홍보료 등의 절감 효과와 소비자와의 직접 연결하므로 신뢰성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하거나 지역 축제나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시킨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농협 및 산림조합 공판장에 특산품코너를 개설하여 강원도 상품을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시킨다. 강원도내 스키장이나 골프장, 자연휴양림,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의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시킨다.

점차 증가되고 있는 산촌개발지역에서 봄철이나 여름철에 산나물교실, 야생화교실, 분재교실 등 임산물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설명하여 지역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한 이와 연계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강원도내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악산 산나물 축제, 양양 송이축제 등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각종 축제를 활용하고, 축제가 개발되지 않는 지역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시킨다.

최근 들어 SNS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홍보 및 판매망의 확대가 필요하다.

V. 결 론

1. 결 론

우리나라의 산촌생태마을은 1995년 춘천시 지암리 산촌생태마을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2011년 현재 76개 마을이 조성되었거나 추진 중인 곳이 있다. 이와 같이 강원도내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강원도 산촌개발 사업을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국 사례의 경우는 주변의 도시와 관광지 등 주변 자원을 잘 활용하고, 친환경 농산품 개발과 도농 교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인근 지역과 연계한 대량 생산체제 구축,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의식 개혁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 지역상품 브랜드화와 새로운 분야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강원도의 산촌생태마을은 초기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를 주로 투입하였고, 최근에는 일부지역에서는 생산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대부분의 마을이 녹색체험시설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녹색체험시설에 높은 비중을 두면서 생산기반시설 사업에도 투입한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생산기반시설로는 산채 재배와 약용식물, 산양삼 재배 등이 많았으나 소득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촌마을은 숙박과 체험시설에 의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산촌생태마을 사업만으로는 산촌이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올리기 어렵고 타

부처의 다른 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또한 주변에 도시지역과 관광지가 있는 지역은 숙박과 체험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임산물 생산에 의한 소득이 적고 장기간을 요하므로 생산기반시설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 생산을 통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단위 마을로서 부족할 경우는 인근 지역과 연계한 강원도 특산의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과 도농교류를 통한 판매 촉진, 산촌 문화의 개발, 신산업분야 개발, 지역 브랜드 개발과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주민 교육, 헌신적인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

2. 정책제언

○ 마을 특성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마을 활성화 유도

임산물 생산 및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촌은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숙박과 체험시설 수익을 필요로 하는 마을은 시설 지원과 경영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산촌 마을에 대한 지원도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마을을 발전시키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의지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거나, 생산비용 및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효율적인 경영방식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숙박과 체험시설에 대한 수익보다는 산촌 활성화의 주목적인 임산물 생산 소득 증가를 위한 투자가 우선되고, 부수적으로 산촌체험·숙박에 의한 수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마을 발전 정도별 차별화된 지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시기와 마을에서 잘 운영하여 소득화의 정도, 타 사업비 추가에 의한 사업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마을별 활성화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마을 특성별 발전 정도, 사업 형태별 차별화된 단계별 교육과 지도로 강원도의 모든 산촌생태마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현재 일부에서 도농교류나 기업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마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산촌으로 확대시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시 아파트단지, 동별 또는 강원도와 연고가 있는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산촌 체험 및 숙박을 통한 마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들에게는 청정농산물 구입과 제2의 고향 만들기를 통한 산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농한기를 활용한 마을 주민 교육 실시

산촌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에 의한 일손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농번기에는 기존 고랭지 채소, 산채재배로 인한 노동력이 부족한 산촌지역에는 교육에 참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농한기를 이용한 생산, 가공 교육, 마을 경영 교육, 지역 자원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산촌 소득 자원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사람들의 기호의 변화, 기후 변화, 임산물 생산량의 변화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래 예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학교와 연구소, 산촌마을, 행정 등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통한 현장연구가 필요하다. 산촌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한다면 보다 나은 산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산촌개발사업에서 생산되는 사업, 즉, 산채 재배, 약용식물재배, 산양삼 재배, 토종벌 사육, 가공 상품화, 체험시설, 지역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 소득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 특색있는 마을사업 개발 및 브랜드 개발

산촌 마을만의 특색있는 임산물, 특산물 개발이 필요하며, 단위 마을로서는 부족할 시는 인근 마을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의 고유 브랜드의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시킨다.

■ 참고문헌

- 광경호, 김세빈. 2002. 산촌종합개발 사례지역의 경제실태와 발전방향. 산림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 김세빈, 김의경, 광경호. 2004. 우리나라 산촌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농업생명과학연구 38(4).
- 김세천, 최형근. 2001. 산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방안.-한국과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5권 2호.
- 김종호. 1999. 한국의 산촌지역 구분과 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산림연구 제3권.
- 김종호, 서정원. 2006. 일본의 산촌지역 녹색관광 사례조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0권 2호.
- 박석희. 2002.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 박석희, 오순환. 2009.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농촌관광연구 16(3)
- 성규철, 서정원. 2004. 산림복합경영을 이용한 산촌지역의 소득증대 방안. 산림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 손철호, 장우환. 2002. 한국의 산촌마을 개발실태와 개선방향. 산촌경제연구, 제10권 2호.
- 윤재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운동 연구. - 오이타현 유후인정을 사례로-.
- 이시제. 2008. 일본산촌 지역 활성화 연구. - 토쿠시마현 카미카츠정의 (주)이로도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8.
- 장우환, 손철호. 2001. 새로운 산촌개발 : 산림도시. 농촌경제 제24권 제1호.
- 장우환, 장철수, 손철호. 2002.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49.
- 정성일. 일본 산촌지역의 성공적인 지역개발전략. -미야자키현 아야정의 사례-. 지역개발연구 제32권 1호.
- 정정숙. 200?. 일본 자치체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 <http://www.forest.go.kr/>
- <http://www.town.minamioguni.kumamoto.jp/living/>

Abstract

Revitalization Plan for Mountain Eco-Village Project of Gangwon Province

Jeom-Soo Kim

To revitalize the mountain eco-villages in Gangwon province, the 50 existing mountain eco-village projects were reviewed through a research on and analysis of the related best practices, for the formulation of an alternative proposal.

In the case of countries like Japan and Europe, mountain villages have developed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stalled sales facilities for rural and urban exchanges, established a mass production system connected with adjacent areas, and promoted the development of experiential-tourism products while utilizing the resources of the nearby cities and tourist destinations. In addition, local activation has been enhanced by reforming the residents' consciousness, inducing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promoting excellent leadership, branding local products, and developing new areas.

At the initial stage of the mountain eco-village project, the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inputted business expenses mainly in the field of living-environment improvement and production infrastructure, but since 2008, the percentage of the business investment in the green mountain experience project has increased.

As production infrastructures, wild plants, wild ginseng, and mushrooms were widely cultivated in the past, but as cultivation takes a long tim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investment in the accommodation and experience facilities, as part of the mountain experience project.

As it seems difficult, however, to revitalize mountain villages only through a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roject, differential support considering the abilities of the human resources and the production status of the forest products of the villages is required, via consistent monitoring.

As a plan to revitalize Gangwon province's mountain eco-villages, the production of eco-friendly forest products and specialties by the nearby regions, and sales through rural and urban exchanges, are suggest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ountain village cultures, new industrial areas, and regional brands as well as a publicity campaign through a variety of media. Above all, however, it is important to train the dedicated leaders and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villagers.

In the administrative aspe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ial-support systems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o develop programs for the revitalization of rural and urban exchanges, to educate the residents during the agricultural off-season, and to have a consistent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distinct brands by the villages.



연구보고 11-27

강원도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검토 및 활성화 방안

Revitalization Plan for Mountain Eco-Village Project of Gangwon Province

2011년 12월 일 인쇄

2011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 김종민

발행처 : 강원발전연구원

(200-04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전화 : (033)250-1310/20/30/40/70/90

FAX : (033)250-1319/1329

URL : <http://www.rig.re.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